서울청년센터 마포 · 청년 진로 · 1회차 / 전 3회

AI로 쓰는 내 진로 한 문장

세 번 · **1회차 — 나 발견 · 재료 모으기**

강의 시작 전 — 사전조사

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세요

이 강의의 방법

바이브 코딩

= AI한테 말로 시키기

+ 지금 쓰는 AI로도 됩니다

코딩 몰라도 · 무료로도 · 설치 없이

먼저 —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

오늘의 순서

6개 세션

01 **강의 설명** — 세 번 동안 얻는 것
오늘 가져갈 것 · 약속

02 **진단** — 막힌 이유
세계 · 산업 · 개인

03 **전환** — 주어가 바뀐다
세상 → 나

04 **도구** — CT 메모
나를 찍는다 · 오늘은 하나

05 **시연** — 제 메모 → 한 줄 정의
모아서 AI에 넣으면

06 **정리** — 손에 남는 것
숙제 · 명령어 · 예고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막연한 불안감 · 초조함 · 부족하다는 생각

우리는 가끔, 혹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

"나는 왜 이렇게
시간 낭비를 하지?"

"왜 이렇게 하루하루가
답답하고 어렵지?"

"남들은
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—
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?"

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— 비슷하게 묶입니다

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— 사회생활 10년 넘게, **거의 매일**
그랬던 제가 — 지금은 **사업 기획 · 컨설팅 · 강의**

여러분뿐만 아니라 — 다른 청년 · 취업준비생도

취업 준비가 제일 막막할 때 — 1위

생각이 비슷하면 — 막히는 자리도 비슷합니다

"내 스펙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"



43.3% 열에 넷이 넘습니다

출처 잡코리아 2022(n=1,011 · 추세 참고) 「취업 준비가 막막한 이유」 1위

취업만이 아니라 — 진로도

구직 중 지쳐 버린 이유 — 1위

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— 제일 지치게 합니다

"진로 불안"



68.4% 열에 일곱 가까이

2위 일에 대한 회의 9.9% · 3위 일과 삶의 불균형 7.1%

이렇게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 — **무엇 때문일까요?**

출처 한국경제인협회 분석(2026.9.7) · 원자료 국무조정실 「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」 — 실업 청년(만 19~34세)이 꼽은 번아웃 원인

막막한 이유는 — 스펙이 아닙니다

그래서 첫 문장 — "너 자신을 알라"

억지로 말고 되게 하려면 — 내 패턴부터

× 스펙이 부족해서?

✔ 나를 몰라서 — 뭘 잘하고, 언제 막히는지

"너 자신을 알라" = 내가 언제 잘되고, 언제 막히는지 — 내 패턴을 아는 것

오늘

내 패턴 찾기

언제 잘되고, 언제 막히나

다음 시간

회사(이유) 파악하기

회사는 왜 그렇게 정했나

마지막 시간

내 길

그래서 — 나는 어디로 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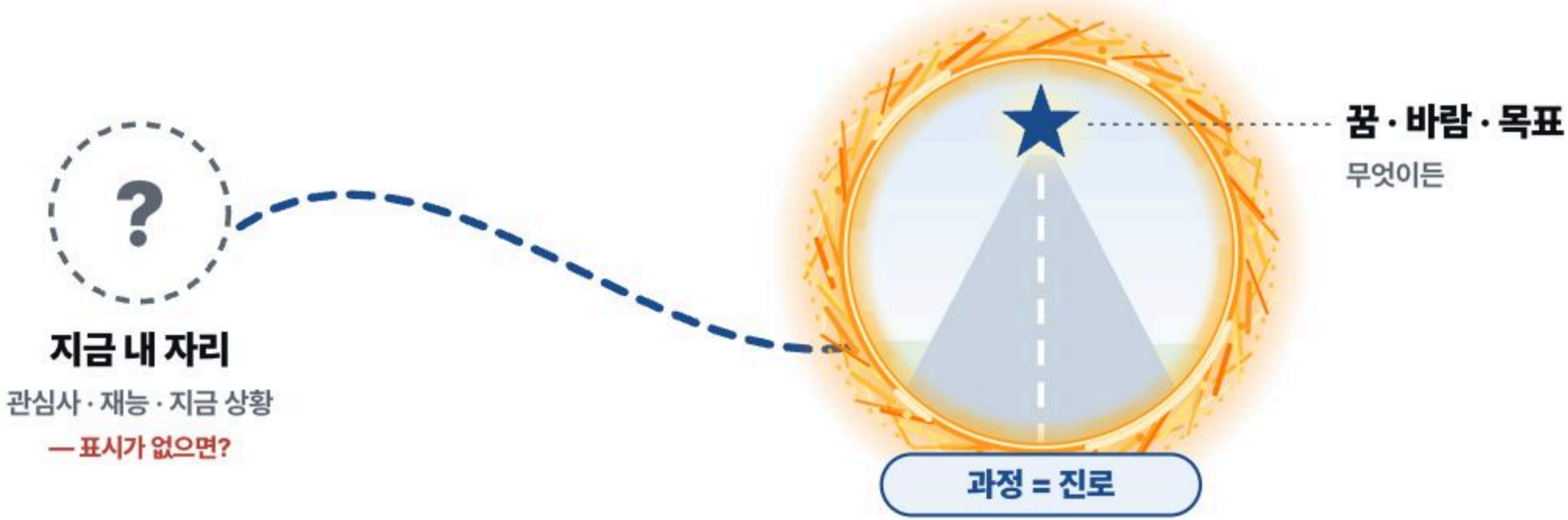
진로(進路) — 나아갈 進 · 길 路

진로는 꿈이 아닙니다 — 그러면?

진로(進路) — 나아갈 進 · 길 路

진로는 꿈이 아닙니다 — 꿈과 목표를 향해 가는 길

지금 내 자리가 안 찍혀 있으면 — 길을 그릴 수 없습니다



그 길 — **내 패턴부터** · 오늘 그 방법 하나

다음 시간엔 회사 쪽 — **결정은 흔적을 남깁니다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까 『저도 마찬가지』 — 제 이야기부터

강사 소개 김성진

양쪽 자리에 다 앉아 봤습니다 — 위로가 아니라 방법

취준 2년

400여 곳 지원

→ 전부 불합격

지금

심사 · 면접 100건+

AI로 도구를 만듭니다

떨어져 본 · 성과 낸 · **뽑아 본** 사람

아까 『저도 마찬가지』 — 제 이야기부터

강사 소개 김성진

양쪽 자리에 다 앉아 봤습니다 — 위로가 아니라 방법

취준 2년

400여 곳 지원

→ 전부 불합격

해외영업 9년

38개국 · 바이어 120곳

관리 매출 48억 정도 · 분업 없이

지금

심사 · 면접 100건+

AI로 도구를 만듭니다

떨어져 본 · 성과 낸 · **뽑아 본** 사람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해외영업 9년 — 그때 사진

출장 · 바이어 미팅 · 현장





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해외영업 9년 — 지방 강소기업

제가 담당했던 곳 — 국내 대기업 · 해외

분업 없이 — 개발 회의부터 선적까지

국내 대기업

해외

38개국

바이어 120여 곳

LG화학 연구소와 — 신제품 5건 공동 개발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까 『저도 마찬가지』 — 제 이야기부터

강사 소개 김성진

양쪽 자리에 다 앉아 봤습니다 — 위로가 아니라 방법

취준 2년

400여 곳 지원

→ 전부 불합격

해외영업 9년

38개국 · 바이어 120곳

관리 매출 48억 정도 · 분업 없이

공공기관 1년

사업 15개

목표 평균 109%

지금

심사 · 면접 100건+

AI로 도구를 만듭니다

떨어져 본 · 성과 낸 · **뽑아 본** 사람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그다음 — 공공기관 1년

제가 담당했던 곳 — 기업 · 자치구 · 공공기관

무엇을 보고 정하고, 어디에 돈을 넣는지 — 옆에서 봤습니다

기업

자치구 · 공공기관

서울시청

노원구 등 7개 자치구

한국중부발전
한국체육진흥공단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서울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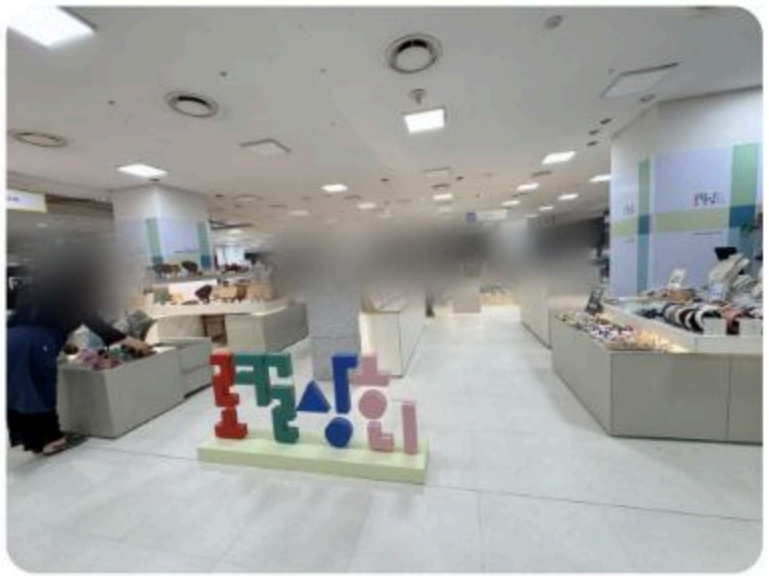
현대백화점 본사 TF와 — 기획전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공공기관 1년 — 그때 사진

기업 · 지자체와 함께한 — 행사 현장





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까 『저도 마찬가지』 — 제 이야기부터

강사 소개 김성진

양쪽 자리에 다 앉아 봤습니다 — 위로가 아니라 방법

취준 2년

400여 곳 지원

→ 전부 불합격

해외영업 9년

38개국 · 바이어 120곳

관리 매출 48억 정도 · 분업 없이

공공기관 1년

사업 15개

목표 평균 109%

지금

심사 · 면접 100건+

AI로 도구를 만듭니다

떨어져 본 · 성과 낸 · **뽑아 본** 사람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저도 그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— 아까 그 2년

늦은 게 아닙니다.
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.

> 하루 **몇 초**로도 쌓이는 방법 — 오늘 드립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그래서 — 세 번 동안 할 일

세 번 동안 할 일 — AI로 내 진로 한 문장 쓰기

진로는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— 찾아보고, 뜯어보고, 고치는 것

오늘 · 나

찾아보고

CT 메모

내가 언제 살아있는지 적어서
『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』

경험 속 공통점을 찾아
'나의 방향 문장' 만들기

→

다음 시간 · 회사

뜯어보고

속사정 읽기

회사 · 산업이 내린 결정을
밖에서부터 역설계로 읽고
— 결과를 보고 거꾸로

관심 있는 회사를 살펴보고
진로 후보 3~5개로 좁히기

→

마지막 시간 · 길

고칩니다

답 맞춰 보기

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 — 가서 확인하고
안 맞으면 — 고치는 법까지
— 여러 갈래의 시각으로

실제 업무를 확인하고
지원동기 문장까지 써보기

취업엔 증거 · 진로엔 기준 — 세 번 동안 둘 다 만듭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신청하며 적어 주신 고민 — 세 번에 나눠 답합니다

세 번 동안 — 진로와 취업에서 얻어 가는 것

적어 주신 고민	오늘 · 나 "뭘 할 수 있는지 · 뭐가 맞는지"	다음 시간 · 회사 "어떤 일 · 어떤 회사를 목표로"	마지막 시간 · 길 "자소서 · 포폴 · 면접에서 할 말"
진로	**내 방향 한 문장** "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"	**진로 후보 3~5개** 무슨 일 · 어느 회사	**맞는지 확인하는 법** 안 맞으면 — 고치는 법까지
취업	**막힌 이유 — 숫자로** 성격 탓이 아니라 재료 문제	**회사의 속사정 읽기** 뿌리까지 — 면접 질문까지	**확인한 근거로 쓰기** 포트폴리오 · 지원 동기

세 번은 — 내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 번 중 오늘 — 좀 더 자세히

오늘 나가실 때 — 손에 남는 것

1



CT 메모 적는 법

몸이 반응한 순간 —
본 것만 한 줄 · 15초

폰 메모장 한 곳

→ 하루 한 줄이 재료

2



실습에서 모은 메모

상황 열 개 중 —
고른 내 몸의 반응

쉬는 시간 · 해 보시면

→ 지우지 말고 두기

3



한 줄 정의

"나는 ___할 때
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"

AI가 후보를 줍니다

→ 다음 시간 진로 후보로

4



명령어

오늘 AI한테 친 그대로
[대괄호]만 바꿔 붙여넣기

채팅방 공지 · 홈페이지

→ 집에서 똑같이

그리고 알게 되는 것 — 왜 막혔는지(세계 · 산업 · 개인) · 내가 잘 풀리는 날의 조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방법은 하나 — AI한테 말로 시키기

말로 시키면 — AI가 만듭니다

세 번 동안 여러분도 — AI한테 말로 시켜서 만듭니다

평소 쓰시는 AI면
— 어떤 거든 됩니다

제가 주로 쓰는 것

클로드

챗GPT

제미나이

코딩 몰라도
무료로도

제가 AI한테 한 말 줄여서

"청년 진로 강의 — 세 번, 두 시간씩.
1회차 나 · 2회차 회사(이유) · 3회차 길.
한 장에 한 메시지, 글자는 크게 —
그림으로 한눈에 들어오게."

AI

제가 친 코드 0줄

AI가 적는 코드

출처 로고는 각 회사의 상표입니다 — 클로드 Anthropic · 챗GPT OpenAI · 제미나이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 강의에선 — 이 방식으로 메모를 분석합니다

적고 → 말로 시키면 → AI가 읽고 묶습니다



추후에 — 제 메모로 직접 보여드립니다

오늘 안 합니다

- ✕ 발표 · 조별
- ✕ 제출
- ✕ 앞에 나오기
- 하실 일 — 폰 버튼 몇 개 그것도 선택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리고 솔직하게 — «안 할 말»

약속하는 것 · 못 하는 것 — 그래서 채팅방

약속 못 합니다

- ~~3회 만에 진로 결정~~ ×
- ~~3회 만에 취업~~ ×
- ~~어디에나 복붙할 자소서~~ ×

대신 — 약속합니다

- ✓ 진로를 정하는 방법
- ✓ 아니다 싶을 때 — 고치는 방법
- ✓ 내 패턴을 보는 방법 — 언제 잘되고, 언제 막히는지

진로 · 취업 — 준비할 게 많아서
세 번에 나눠, 단계별로 드립니다

다만 세 번, 두 시간씩 —
한 분 한 분 다 봐 드리기엔 짧습니다

그래서 — 채팅방

강의 끝나도 계속 열어 둡니다 · 익명

이런 것 — 물어보세요

- 강의 내용 — 더 묻기
- AI로 만드는 법
- 자소서 — 막힌 데 질문
- 회사 정보 — 찾는 법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여기까지 — 본론 들어가기 전에

우리는 모두 해결책을 알고 있다 — 다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할 뿐

	③ 개인	② 산업	① 세계
막힌 이유 — 문제	지도가 바뀌었다	회사가 생존 모드다	판이 바뀌었다
꺼내는 도구	① **CT 메모** 오늘 — 내 패턴을 제3자의 시선으로	② ?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	③ ? 마지막 시간에 다룹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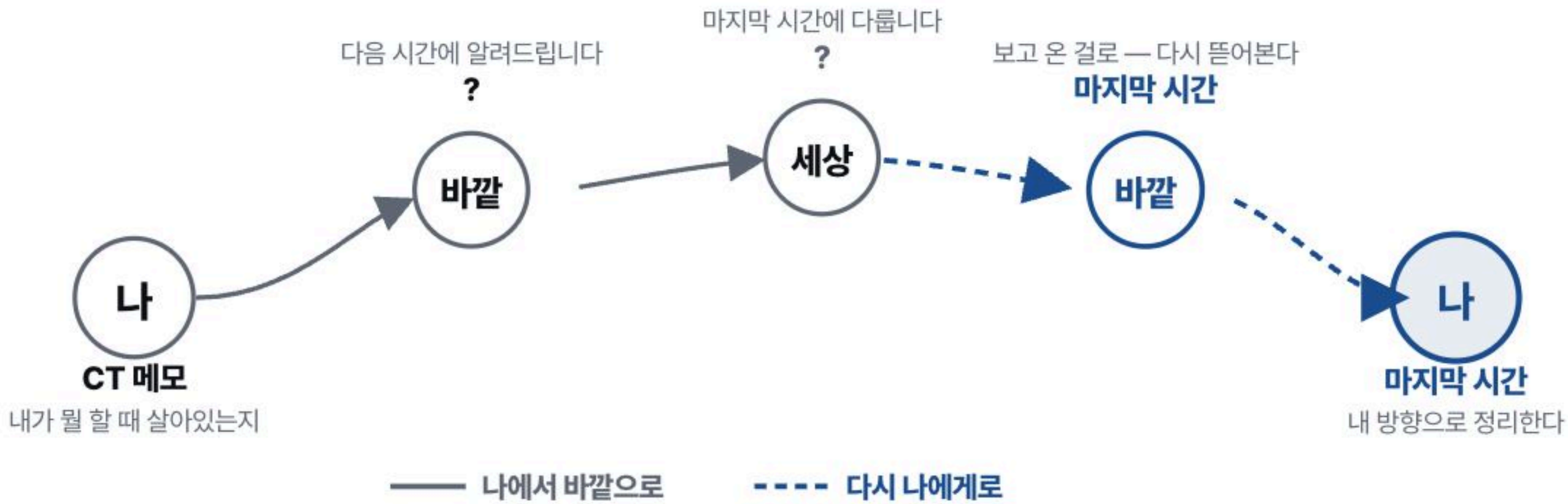
진단만 하면 무력 · 도구만 주면 이유를 모릅니다 — 그래서 짝으로 붙였습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이 도구 셋 — 제가 실제로 쓴 순서

나에서 출발해서 — 다시 나로

오늘 나 · 다음 시간 회사 · 마지막 시간 세상 — 그리고 다시 나



회사는 그 과정에서 — **내 방향을 확인하는 대상**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

진단 — 왜 이렇게 됐나

취업도 진로도 막힌 이유를 세 층으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왜 진단부터냐면 — 병원처럼

병원도, 우리도 — 진단이 먼저입니다

진단 = 명확한 현실 인식 — 숫자로 재고, 이름을 붙이는 것



진단 없이 방법부터 주면 — **왜 해야 하는지** 모릅니다.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1

세계 — 판이 바뀌었다

AI가 사무실 입구까지 왔다

① 세계

② 산업

③ 개인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첫째 — 판이 바뀌었다

진단 · 세상이 한 일

① 세계
판이 바뀌었다

② 산업
회사가 생존 모드다

③ 개인
지도가 바뀌었다

① CT 메모
나를 찍는다

② ?
다음 시간에

③ ?
그다음에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도구 ·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10년 전 — 여러분 대부분 학교 다닐 때

2016년 3월 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습니다

AI

4

알파고

AI

1

이세돌 9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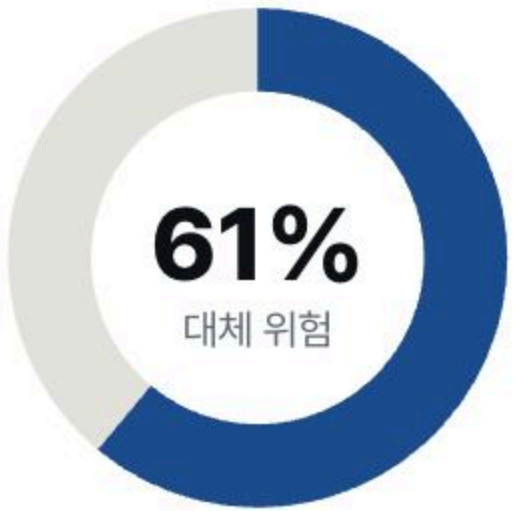
사람

2016년 3월 · 서울 · 다섯 판

그해 — 정부 연구기관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10년 전의 예언



2016 · 알파고의 해 — 정부 연구기관

"2025년까지 국내 일자리의 61%가 대체될 위험"

2025년이 지났습니다 —

일부는 맞았고, 일부는 달랐습니다

출처 **한국고용정보원** 「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」 2016 — AI·로봇 전문가 21인 조사 · 2025년 기준 직업종사자 **61.3%**가 대체 위험 높은 직업군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일자리를 3층 건물로 놓고 보면 — 물은 아래부터 찹니다

위로 갈수록 판단하는 자리 — 아래로 갈수록 단순 반복 업무

지난 10년 — 1층부터 물이 찼습니다

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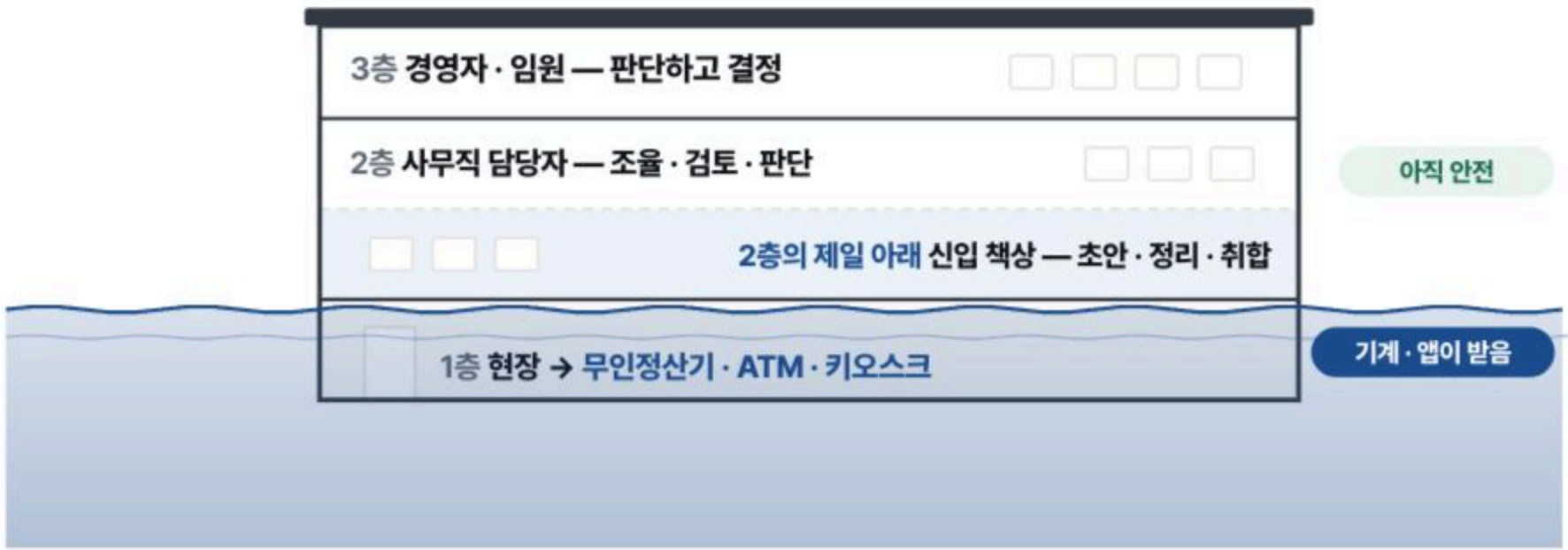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물은 항상 아래부터 — 2층의 제일 아래가 신입 책상

층마다 — 누가 앉아 있나

일자리를 3층 건물로 놓고 보면 — 물은 아래부터 찹니다

위로 갈수록 판단하는 자리 — 아래로 갈수록 반복하는 자리

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3년 전 생성형 AI — 초안 · 정리 · 취합부터 · 한국은행 그림

같은 업종 — 30대↑ · 신입 나이대↓

20대 신규 채용 — 통계 작성 이후 최저 (2026 1분기)



같은 업종 안에서

30~59세 ↑

+11%

15~29세 ↓

−31.4%

−31.4%는 보고서 수치
+11%는 그림에서 읽은 값

챗GPT 출시(2022.11) 뒤 — **AI 노출 업종일수록** 청년 고용 감소

출처 **한국은행** BOK 이슈노트 2026-19 「청년고용 위축, AI 탓인가?」(2026.8.18 · 오삼일·오영식) 그림 6 정보서비스업 · 자료 국민연금공단 · 청년 −28만 5천 중 26만 8천(94.0%)이 AI 고노출 업종 · **국가데이터처**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(20대 이하 신규 채용 134만 3천 개 · 통계 작성 이래 최소) · 그래[illegible]감소율(2022.6→2026.6 · 같은 보고서 · CBC뉴스 2026.8.18 보도) · **30~59세 +11%**는 그림 6 선 끝값(2022.11 = 100 → 2026.6 = 111.3)을 읽은 값 — 보고서 본[illegible]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건물이 — 기울어졌습니다



1층이 다 잠기기 전에 — **2층 신입 자리**부터

먼저 잠긴 건 현장이 아니라 — 사무실 입구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"경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준비 안 했나?"

누가	무엇을 했나
한국	알파고 이듬해부터 **국가 차원 AI 대책 수립**
미국	백악관 · 2016 **보고서 2편 발간** 그 뒤 — AI 연구 · AI 인재 기르기에 투자(2019)
세계	같은 시기 **17개국이 비슷한 계획서 발표**

그런데 계획서마다 — 똑같은 칸이 비어 있었다

"신입 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"

(비어 있음)

준비는 넘쳤습니다 — 방향이 전부 **"AI 인재를 기르자"**

출처 미국 — 백악관 보고서 두 편(2016.10 · 2016.12) · 그 뒤 행정명령 13859(2019.2 — AI 연구 · AI 인재 양성 · 일자리 대책 없음) · 2025 AI 실행계획(신입 자리는 «시범 사업 가능»까지)

예측이 빗나간 게 아닙니다

코로나가 재편을 앞당겨 — 신입 자리부터 먼저 닫혔습니다

당시엔 — 직업 단위로 봤습니다 예상

회계사 위험

배관공 안전

처방 = 더 공부해서 위로

실제로는 — 입구가 닫혔습니다 실제

같은 직업 안에서

경력자 — 그대로

신입 자리만 — 닫힘

처방대로 올라간 곳부터
— 예상보다 빨리

재는 단위가 달랐습니다 — 직업이 아니라 **입구**

그 물이 — 언제 찼는지

여러분의 연대기

코로나가 바꾼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 — 10년치가 2년 만에

2016 — 알파고
"먼 미래 얘기"
61% 대체 경고

2017~ — "코딩 배워라"
17개국 계획서 —
신입 항목 없음

2020 — 코로나
인턴·알바·모임 멈춤

2021 — 다들 개발자
2년 뒤 IT 공고
3분의 1↓

2022 — 챗GPT
생성형 AI

지금 — 올해 관문
회사의 언어 = AI

예상보다 빨리 바뀐 판 — 여러분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

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6 · 정부 AI 국가전략(17개국 비교) ·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· **중부일보**(개발자 공고 29만 건 · 판교 IT 72.3% · 2만 명 부족) · **한국경제**(IT 신규 공고 −34% · 공채 중단)

그리고 — 그 몇 년을 통과한 사람들

경험을 못 쌓게 해 놓고 — 경험을 요구합니다

없었던 것		그래서 지금
사람을 만나는 기회 재택근무 · 수업 · 모임 · 동아리	→	**아는 사람도, 물어볼 데도 없다**
일해 보는 기회 인턴 · 현장 아르바이트	→	**"경험 없음"** 기업이 신입에게 1순위로 보는 게 직무 경험인데
배우는 기회 먼저 해본 사람의 말	→	**"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음"** 해본 게 없으니 고를 재료가 없다

학교든 첫 일자리든 — **겹치는 것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

판이 바뀌는 속도가 — 준비하는 속도보다 빨랐을 뿐

세션 1 파트 2

산업 — 회사가 생존 모드

큰 회사도 죽는 걸 30년 봤다

① 세계

② 산업

③ 개인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둘째 — 회사가 생존 모드

진단 · 세상이 한 일

① 세계
판이 바뀌었다

② 산업
회사가 생존 모드다

③ 개인
지도가 바뀌었다

① CT 메모
나를 찍는다

② ?
다음 시간에

③ ?
그다음에

도구 ·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"큰 회사도 죽는다" — 30년 학습

그래서 회사가 배운 것 — 검증 안 된 것에 안 건다 · 신입 = 검증 안 된 자산

1997 IMF	2016 해운	2024 폐업 신고
대우	**한진해운**	**100만 명**
재계 2위	세계 7위	통계 작성 이래
그룹 해체	청산	처음

「경영 잘못 아니에요?」 — 맞습니다. 그런데 **전부 호황기에 내린 결정**

출처 **국세청** 국세통계(2024년 폐업 신고) · 동양그룹 2013.9~10 계열 5사 기업회생 신청 · 아시아나항공 2024.12.12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

삼성전자 다섯 개쯤 합치면, 어느 회사 하나?

회사가 무서워하는 공포의 급이 달라졌습니다



삼성전자 1,532조 원 × 4.9 · 정부 1년 예산 728조 원 × 10 — 둘 다 이 회사 하나

시가총액 · 예산 — 종류가 다른 돈 · 크기만 견줍니다

출처 시가총액 — 2026년 10월 8일 종가(10월 9일 한글날 · 한국 증시 · 외환 휴장) · 환율 1,338.5원(서울 외환시장 주간 종가) · 엔비디아 5조 5,540억 달러(Nasdaq · 7,434조 원) · 삼성전자 보통주 1,532조 원(한국거래소 정규장 종가 262,000원 × 보통주 5,846,278,608주 — 제 계산) · 2026년 본예산 총지출 727.9조 원

영화가 상상한 초거대 기업들

Forbes「The 25 Largest Fictional Companies」(2007) 매출 추산 · 엔비디아 2026 회계연도 매출 2,159억 달러 · 10월 8일 환율 1,338.5원

영화 속 배트맨 · 주인공의 회사
WAYNE ENTERPRISES
45조 원

영화 속 아이언맨 · 주인공의 회사
STARK INDUSTRIES
29조 원

영화 속 터미네이터 · 스카이넷 만드는 회사
CYBERDYNE SYSTEMS
8조 원

엔비디아가 1년에 버는 돈 2026 회계연도 매출 · 2026년 1월 끝

약 289조 원

영화 속 세 회사를 다 합치면



82조 원 — 3분의 1도 안 됩니다

■ 웨인 45조 원 ■ 스타크 29조 원 ■ 사이버다인 8조 원

사이버다인 8조 원 ×36 = 엔비디아 289조 원

※ 영화 기업은 2007년 매출 추산 ·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매출 — 둘 다 「1년에 번 돈」입니다

회사 하나가 — 한 나라의 GDP보다 큽니다



※ 시가총액은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값 · GDP는 한 해 동안 만든 값 — 잣대가 달라서 크기만 견줍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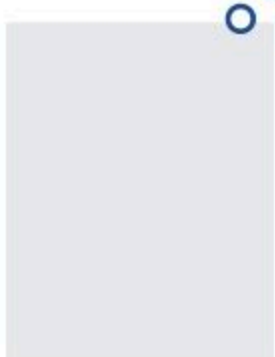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1년 치 GDP의 — **거의 세 배**(2.97배)

출처 엔비디아 시가총액 — 2026년 10월 8일 종가(5조 5,540억 달러 · Nasdaq) · 영국 · 프랑스 · 한국 GDP — **IMF** 세계경제전망 2026년 4월판 · 2025년(달러 기준)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런 회사들이 "우리도 뭐 한번 해볼까?" 한마디를 하면 — 업계 하나가 흔들린다

"우리도 뭐 한번 해볼까?"



A사 CEO
— 회의실에서

새 분야로 →

그러면 원래 그 일을 하던 쪽은 — 거리로 · 멈춤 · 파업 · 소송

2018 · 카카오 카풀 → 택시

택시기사 수만 명 — 국회 앞으로

주최 측 12만 · 경찰 5만~6만(추산)

2021 · 사모펀드 → 동네 세차장

미국 도시들 — 새 세차장 허가 멈춤

한 해 900곳 안팎 생기자(업계 추산)

2023 · AI · 스트리밍 → 할리우드

작가 1만 1,500명 — 148일 파업

AI 사용 규칙도 쟁점 → 계약에 반영

2023 · 오픈AI → 신문

뉴욕타임스 — AI 회사에 소송

무단 학습했다며 · 아직 판결 전

출처 세차장(16차) — 블룸버그 2024.2.21(사모펀드 · 월 구독 모델이 새 세차장 붐) · 새 세차장 한 해 900곳 넘게(2021 936 · 2022 943 · 업계 · 파산한 체인의 법원 서류) · 새 세차장 허가 중단 · 개수 제한 — 오하이오 스토우 · 파마(2021) · 스트리츠버러(2023.1) · 브룩파크(2024.5) · 앨라배마 버밍엄(2024.3~) · 미시간 워런(2026.5) · 해제한 도시도 있음(오하이오 페리스버그) / 카풀 — 서울신문 2018.12.21(12.20 국회 앞 · 주최 측 12만 · 경찰 추산 5만~6만) · 바이라인네트워크 2019.1.15(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) / 할리우드 작가 파업 — 2023.5.2~9.27(148일 · 조합원 약 1만 1,500명 · 스트리밍 보상 · AI 사용 규칙 등 쟁점 · 새 계약에 「AI는 작가가 아니다 · 쓸지는 작가가 고른다」 · WGA 공식) / 뉴욕타임스 — 2023.12.27 오픈AI ·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저작권 소송 · 2026.9 현재 판결 전(AFP · NPR)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금의 거대 기업들이 뛰어든 뒤 —

실제로 — 산업이 통째로 바뀐 여섯 (국내 · 해외)

국내

2010 카카오 → 메신저

유료 문자 → 무료 메신저

통신사 문자 1년 새 38% 감소(2012)

2010 배달의민족 → 배달

전화 · 전단지 → 배달앱

온라인 배달 주문 7년 새 10배 넘게(2017 → 2024)

2015 카카오 → 택시

전화 콜택시 → 앱 호출

8개월 만에 택시기사 70% 가까이 가입(2015)

해외 · 최근 4년

2022 오픈AI(챗GPT) → 숙제 풀이

숙제 풀이 사이트 → AI 채팅

미국 숙제 풀이 회사 체그 — 직원 2,071 → 595명(2022 → 2025)

2023 마이크로소프트 · 구글 → AI 경쟁

사무실 공사 → 데이터센터 공사

미국 건설비 — 데이터센터가 일반 사무실 추월(2025년 말)

2024 구글 · 아마존 → 원자력

대형 원전만 → 소형 원전도

소형 원전 계약 45GW(2026) · 가동은 아직 0기

출처 국내 — 문자: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(2012 문자 582억 건 −38.2%) · 배달: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 음식서비스(2017 2조 7,326억 → 2024 29조 2,802억 · 개편 뒤 공식값 36조 9,891억 — 어느 쪽이든 10배 넘게) · 택시: 카카오 발표(2015.12 · 기사 회원 19만+ = 전국 택시 면허 수의 70%에 육박) / 해외 — 숙제 풀이: 체그 SEC 연차보고서 직원 2,071명(2022 말) → 595명(2025 말 · 시간제 포함) · 회사가 적은 원인 = 생성형 AI · 구글 AI 요약 · 건설: 미국 인구조사국 건설 지출(2026.9.1 발표 · 데이터센터가 일반 사무실보다 큰 달 = 2025년 4월 한 번 · 9월부터 매달 · 1년 합계로는 2025년 아직 사무실이 조금 큼) · 원자력: 구글–카이로스(2024.10 · 최대 500MW · 첫 가동 2030 목표) · 아마존–엑스에너지(2024.10 · 2039년까지 5GW+) · 데이터센터–소형 원전 조건부 계약 25GW(2024 말) → 45GW(IEA 2026.4.16) · 미국에서 상업 가동 중인 소형 원전 0기(카네기재단 2026.6) · 빅테크 원전 계약의 절반쯤은 기존 대형 원전 재가동 ·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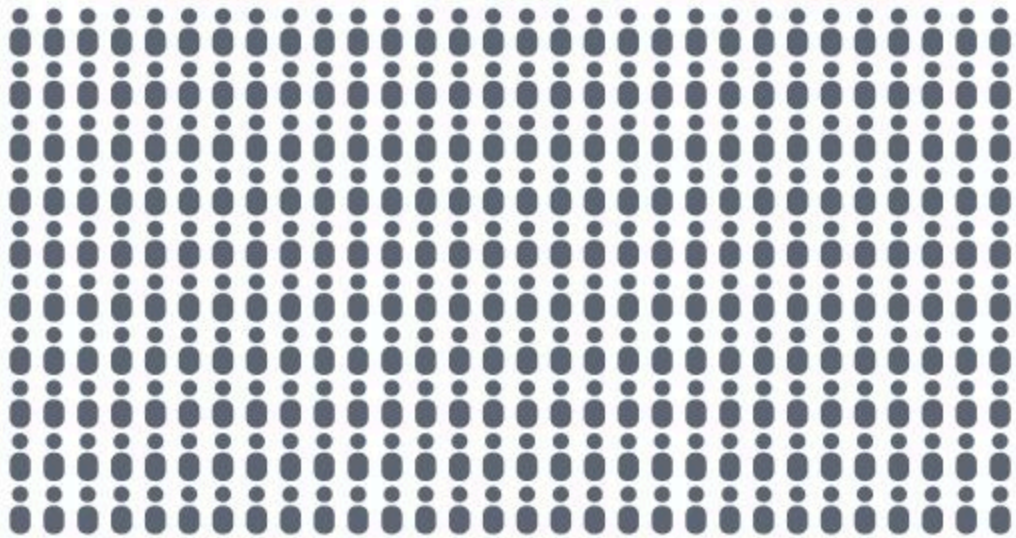
한국에선 — 한 겹 더

공장 하나는 3만 명 — 데이터센터 하나는 200명

돈이 몰리는 곳에 — 사람 자리가 없습니다

과거 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

약 3만 명



현재 — 네이버 데이터센터 · 세종

약 200명

「각 세종」 — 2023년 11월 문을 열었습니다

현재 — 메타 데이터센터 · 미국 인디애나

다 짓고 나면 — 약 100명

2024년 1월 짓겠다고 발표 · 주정부 자료

1명 = 사람 100명

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

출처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(울산공장 근무인원 3만 명대) · 네이버 「각 세종」 2023.11.6 개관(바이라인네트워크 2023.11.8) · 직접 고용 200명 = 네이버 작성 자료의 예상치(대전세종연구원 2021.8 보고서 인용 · 메트로세종 2023.5.4) · 메타 인디애나 — Indiana EDC(주정부 공식) 2024.1.25 발표(상시 100명) · 한국은행「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」(반도체 수출 비중 11.1→26.1% · 고용 비중 3.9→5.0%)

생존 모드는 —
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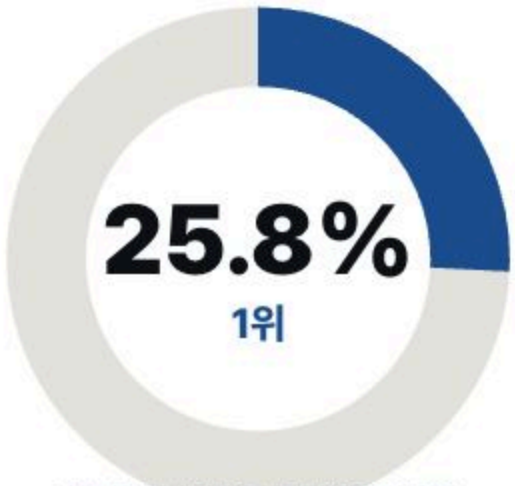
그게 여러분이 들은 그 말의 정체 — "신입인데, 경력 있으세요?"

「당장 쓸 사람」을 찾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"사람이 남아돌아서 안 뽑나?" — 못 뽑습니다

회사가 찾는 건 — "해본 사람"입니다



회사가 사람을 못 뽑은 이유
"요구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"



신규채용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
"직무 관련 업무 경험"

공채만 하는 회사 — **열에 하나** · 수시 공고엔 경력자도 같은 문으로

출처 **고용노동부** 「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」 · **경총** 100인 이상 500개사(2026.1~2) · **국가데이터처** 청년층 부가조사 · **한국노동연구원** 직무 인원 필요 시 우선 선택 — 1순위 수시 채용 47% · 공개 채용은 3순위 72% · 이상준 외 (2023) 정기 공채 비중 39.9→35.8%

"눈높이를 낮춰라"?

눈높이는 이미 낮습니다 — 낮춘 눈높이로도 문이 안 열립니다

약 3,100만 원 — 셋 다 거의 같습니다

"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일하겠다"는 금액

= 결코 높은 눈높이가 아닙니다



희망하는 회사 1위도 — **중소기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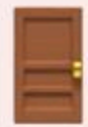
출처 **한국은행** 2026.1.20 — **유보임금**("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일하겠다") 조사

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



회사

생존 모드라 —
사람을 키우지 않을 뿐



취업

경력을 요구하는 문이 —
경력 만들 통로를 막았을 뿐



진로

새 판을 겪어본 어른이 —
아직 적을 뿐

× "더 쌓으세요"

스펙·경험 — 더 쌓기

🔄 **시각의 전환**

보는 눈을 바꿉니다

✔ 이미 가진 걸 —
꺼내 쓰는 법

공개판 — 남의 그림·로고·QR·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3

개인 — 지도가 바뀌었다

"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"

① 세계 ② 산업 ③ 개인

셋째 — 지도가 바뀌었다

진단 · 세상이 한 일

① 세계
판이 바뀌었다

② 산업
회사가 생존 모드다

③ 개인
지도가 바뀌었다

① CT 메모
나를 찍는다

② ?
다음 시간에

③ ?
그다음에

도구 ·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 사이 — 답지는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

답지가 바뀌어 온 연대기

정답을 못 맞힌 게 아니라 — 문제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

2016	2020	2021	2022	2025	지금
"코딩 배워라"	"비대면"	"개발자 해라"	"AI 배워라"	"AI 쓰는 사람"	또 바뀌는 중
알파고 뒤	코로나	IT 붐	챗GPT	바이브 코딩	답지가

그때마다 새로 배우고 적응한 게 — 여러분의 힘

그리고 이건 — 진로 쪽으로도 그대로예요

답지가 바뀌는 만큼 — 갈 수 있는 길도 늘었습니다



부모님 세대

진로 = 직장 · 직업 그 자체

정해진 길 하나



지금

이름도 없던 일이 직업이 되고

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

일방통행에서 — 360°로

길이 사방으로 열렸습니다 — 방향은 내가 고릅니다

예전 — 일방통행



공채 시즌 · "이것만 하면 된다"

선배가 간 길 — 하나

지금 — 360°

↻ 휙 돌려 보세요



사방이 다 길 — 방향은 내가 고릅니다

올해 — 대기업 넷의 입사 관문

새 언어는 — 다들 이제 막 배우는 중입니다

30분

생성형 AI만 써서 과제 하나

시험지가 없습니다
모니터에 과제 하나
채점도 AI

코딩 ×

재는 건 — 역할 · 맥락 · 검증

AI한테 역할을 주고
맥락을 설명하고
나온 걸 검증하는 법

자소서 한 칸

「AI 활용 경험」

한 반도체 회사
자소서 항목으로

10년 전엔 오피스가 회사의 언어 — 지금은 **AI 쓰는 법**입니다

출처 KBS 뉴스 2026.9 「대기업 채용 AI 능력 평가」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"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" — 필요한 건 고를 기준 하나

취업도, 진로도 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

오늘 모으는 재료는 — 같습니다



성격 · 마음 · 결단력

— 문제가 아닙니다

지도가 바뀐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



필요한 건 — 고를 기준

나만의 답은 지나온 하루들 안에

꺼내기만 하면 됩니다

세션 1 파트 4

그래서 — 어쩌라는 겁니까

① 세계

② 산업

③ 개인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 층 다 봤습니다

진단 — 한 장으로

① 세계



판이 바뀌었다

AI · 코로나 — 입구부터 먼저

② 산업



회사가 생존 모드

당장 쓸 사람 · 경력을 본다

③ 개인



지도가 바뀌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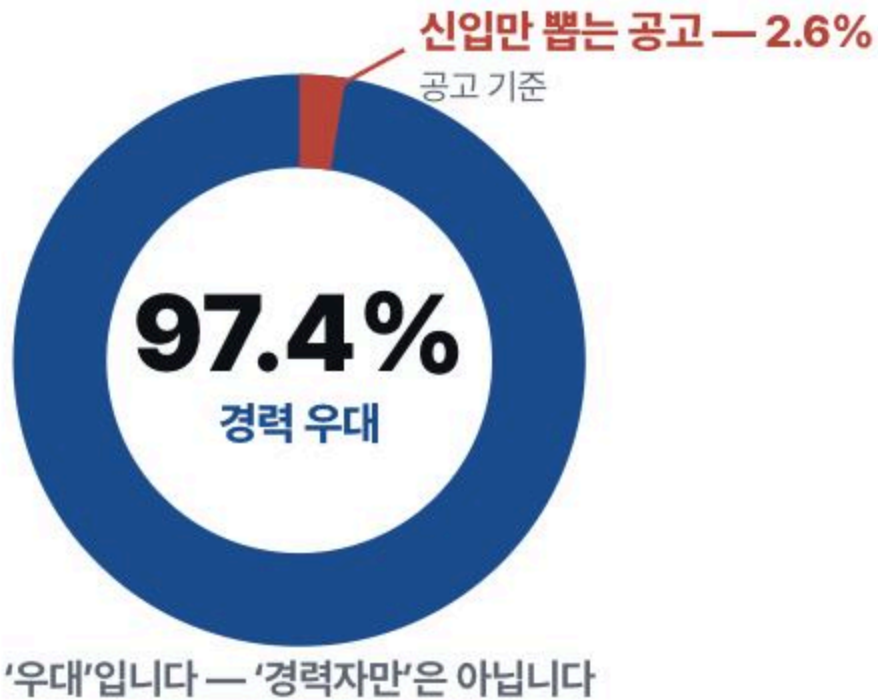
길이 사방으로 — 고를 기준이 필요

막힌 게 아니라 — 바뀐 겁니다 · 바뀐 판엔 바뀐 방법이 있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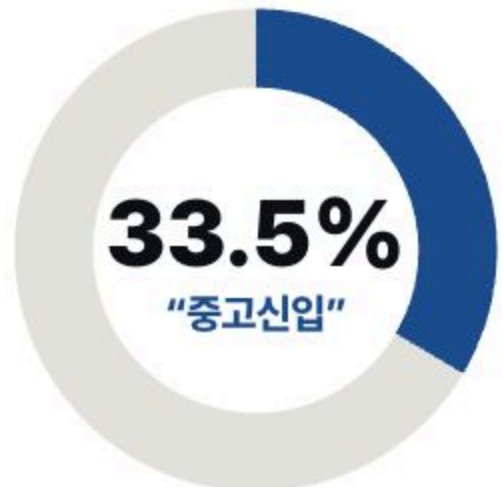
여기서부터는 — 취업 얘기부터

"결국 경력직만 뽑는 거 아닌가요?"



'우대'입니다 — '경력자만'은 아닙니다

채용공고 14만 4천 건 · 대한상의



인사담당자가 꼽은 올해 최대 이슈 — 1위

인크루트 650명

그 말, **방향은 맞습니다** — 체감은 착각이 아닙니다

출처 **대한상공회의소** 2026.3 — 채용공고 **144,181건** 분석 (⚠️ 공고 기준) · **인크루트** 인사담당자 650명

연차는 못 만듭니다 — 그런데 증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

모두 경력자만 뽑으면 — 새로운 가능성이 안 생깁니다

회사가 피하는 것

~~연차가 부족한 것~~

잘못 뽑는 위험

→

그래서 필요한 것

"이 문제를 이미 이해했다"

증거 한 장

회사가 사람을 못 뽑은 이유 1위 — "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"
25.8% · 네 반기 연속 1위 —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**병목**입니다

출처 **고용노동부** 「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」 2026년 1분기 — 미충원 사유 1위 "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" **25.8%** (4개 반기 연속 1위)

이건 제 말만이 아닙니다 —

세계적인 창업자들도 — 연차보다 해낸 것을 봅니다

이유는 하나 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

피터 틸

투자자 · 페이팔 공동창업자

학교 대신 — 새것을 만드는
젊은이에게 2년 지원금

틸 펠로십 · 2011년부터

샘 올트먼

오픈AI 대표

경험 · 지금 성과보다 —
얼마나 빨리 느는지를 본다

블로그 「성공하는 법」 · 2019

일론 머스크

테슬라 · 스페이스X 대표

학위는 안 본다 —
뛰어난 능력의 증거를 본다

2014 인터뷰 · 2026 공지 "증거 세 줄"

공통점 — 몇 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냈느냐

출처 틸 펠로십 공식 소개(thielfellowship.org — 교실 대신 새것을 만드는 젊은이에게 2년 지원 · 2011년 첫 기수 · 2026 기수 25만 달러) · 샘 올트먼 「How To Be Successful」(2019.1.24 · 11장 — 사람을 볼 땐 느는 속도(rate of improvement)를 보고 경험 · 지금 성과를 과대평가하지 말라) · 일론 머스크 AUTO BILD 인터뷰(2014.11 — 대학 · 고교 졸업 불필요, 뛰어난 능력의 증거) · X 채용 공지(2026.5.20 — AI 경험 없어도, 뛰어난 능력의 증거 세 줄)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올해 — 한국 대기업들도

신입 채용이 — 스펙에서 증거로

묻는 건 결국 — 겪은 일 · 맡은 역할 · 결과 — 적어 둔 하루가 꺼내 보일 증거가 됩니다

SK hynix

SK하이닉스 · 2026년 6월

학력 제한 — 없앰

경험 · 직무 역량 ·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

kt

KT · 2026년 8월

스펙보다 — 겪은 일

겪은 상황 · 맡은 역할 · 시도와 결과

KIA

기아 · 2026년 9월

AI로 — 푸는 과정

신입 규모는 최근 3년 중 가장 많게

앞으로 — 미국 임원 · 인사책임자 1,498명(2026)

"AI 때문에 신입 채용이 늘 것"

46% "줄 것" 17%

한국 기업이 신입에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(2026)

1위 — 직무 관련 경험

67.6%

경총 · 500곳

출처 SK하이닉스 학력 제한 폐지(국민일보 2026.6.17 · 경향신문 2026.7.30) · KT 대졸 신입 — AI로 직무 문제를 푸는 법 · 겪은 상황 · 맡은 역할 · 시도와 결과(스마트투데이 2026.8.25) · 기아 하반기 채용 — AI 문제해결력 검증 · 신입 규모 최근 3년 최대(이코노미스트 2026.9.8) · KBS 뉴스9(2026.9.15) · Strada 「Entry-Level Hiring in the AI Era」(미국 임원 · 인사책임자 1,498명 · 2026.3 — 2026년 AI 때문에 신입 채용 늘 것 46% · 줄 것 17%) · 한국경영자총협회 신규 채용 조사(100인 이상 500곳 · 2026.3.10 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1위 직무 관련 업무 경험 67.6%)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래서 남은 길 — 정확도

좋은 방법이라서가 아닙니다 — 남은 게 이것뿐이라서입니다

~~① 포기~~

여기 오신 분들은
이미 안 골랐습니다

~~② 물량~~

신입 공고가
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
400군데 넣기 — 이제 안 됩니다

③ 정확도

여기만 남습니다
공고에 적히지 않은 자리

③이 가능한 이유 — 강사가 심사한 100건에서
경력자 중에도 그 회사를 모르는 지원자가 많았습니다
경력은 우대권이지 — 입장권이 아닙니다

심사석에서 보면 — **경력자도 회사를 모릅니다**

출처 신입 공고 **45% 감소** — 2025.3 **1,438건** → 2026.3 **791건** · 「심사 100건」은 **강사 본인 경험**(채용 면접 + 지원사업 서류 심사)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 확률을 누가 정하나 — 사람

그리고 — 뽑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

기계가 줄을 세우고 — 뽑는 건 사람

73%

100대 기업

AI 채용 도구 쓰거나 검토 중

8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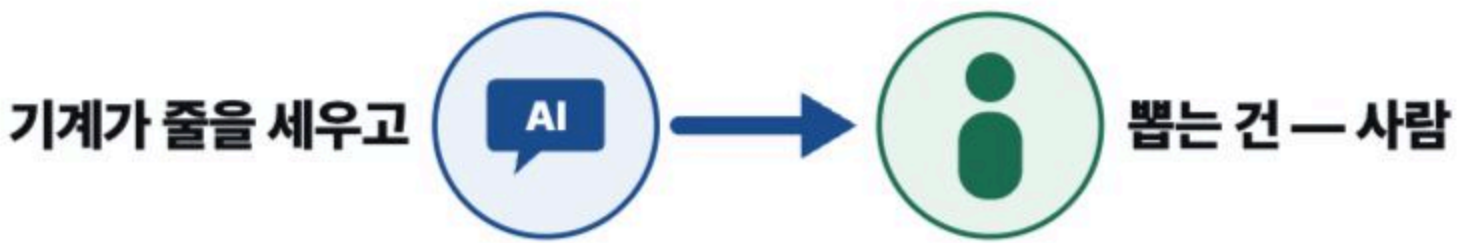
인사담당자

"AI 평가 결과 — 안 믿는다"

15%

인사담당자

"판단을 AI에 맡긴다"



출처 100대 기업 AI 채용 도구 도입·검토 **73%** · AI면접 **700개사+** · 인사담당자 AI 평가 불신 **82%** — 채용 플랫폼·인사담당자 조사 종합(2026)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드물다는 건 — 그만큼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

심사 100건 —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아는 지원자는 극소수

지원자 대부분

"저는 · 제가 · 저의 …"
— 자기 얘기만

1

바뀐 세상에서 그 일이 어떤 역할인지 아는 사람

내 자리가 어디에 끼는지

2

무엇으로 돈 버는지 아는 사람

그 회사가 뭘로 먹고사는지

3

즉시 투입 가능한 사람

못 뽑은 이유 1위 "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" → 요구하는 걸 갖추면 됩니다

물론 노력 · 시행착오 · 습관은 필요합니다

위의 1번~3번을 회사 밖에서 알아내는 힘 — 이번 강의 세 번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

여기까지 취업 — 이번엔 진로

취업엔 증거 · 진로엔 기준 — 재료는 같습니다

취업도 진로도 — 적어 둔 하루에서 시작합니다

취업

회사가 묻는 것

겪은 일 · 맡은 역할 · 결과

→ 증거

진로

내가 찾는 것

내가 언제 살아있는지

→ 기준

📝 적어 둔 하루

진로도 — 바뀐 판엔 바뀐 방법

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— 찾아보고, 뜯어보고, 고칩니다

오늘 맞출 필요 없습니다 — 일단 찾아보면 됩니다

예전 — 한 번 정하면 평생

"정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"



은행원 · 공무원 · 회사원 · 선생님

그때의 공포만 — 남았습니다

지금 — 바뀐 판

① 찾아본다
오늘 · 나

② 뜯어본다
다음 시간 · 회사

③ 고친다
마지막 시간 · 길

한 문장을 — 세 번에 걸쳐 다듬습니다

솔직하게 말씀드리면 — 다들 같은 출발선

안 배운 것이지 —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

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

2022.11
생성형 AI
나온 지 — 4년이 안 됐습니다

2025
바이브 코딩
말로 시켜서 만들기 — 1년 반



▲ 여러분

다들 같은 출발선 — 준비만 하면 됩니다

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— **진로를 찾고 취업문을 넓히는 방법**을 알려드립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5

주어가 바뀝니다

세상이 한 일 →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 덩어리 — 다 바깥 얘기

여기까지가 — 바깥 얘기였습니다

정보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— 나에게 가까워야 중요합니다



위쪽 세 개 — 세상이 여러분한테 한 일

진단 · 세상이 한 일

여기까지의 주어
세상

① **세계**
판이 바뀌었다

② **산업**
회사가 생존 모드다

③ **개인**
지도가 바뀌었다

① **CT 메모**
나를 찍는다

② **?**
다음 시간에

③ **?**
그다음에

도구 ·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금까지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한 일이었습니다
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

진단 · 세상이 한 일

여기까지의 주어 **세상**

① **세계**
판이 바뀌었다

② **산업**
회사가 생존 모드다

③ **개인**
지도가 바뀌었다

여기서주어가 바뀐다

① **CT 메모**
나를 찍는다

② **?**
다음 시간에

③ **?**
그다음에

도구 ·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래쪽 세 개는 — 여러분이 하는 일

진단 · 세상이 한 일

여기까지의 주어 **세상**

① **세계**
판이 바뀌었다

② **산업**
회사가 생존 모드다

③ **개인**
지도가 바뀌었다

여기서주어가 바뀐다

여기부터의 주어 **나**

① **CT 메모**
나를 찍는다

② **?**
다음 시간에

③ **?**
그다음에

도구 · 내가 하는 일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구조는 못 바꿔도 — 읽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

세션 2

도구 세 가지, 오늘은 하나

개인 · 산업 · 세계 — 오늘 켜는 건 첫 번째 · 개인. 둘은 다음 시간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오늘부터 할 것 — 찾을 건 셋

그 셋 — 개인 · 산업 · 세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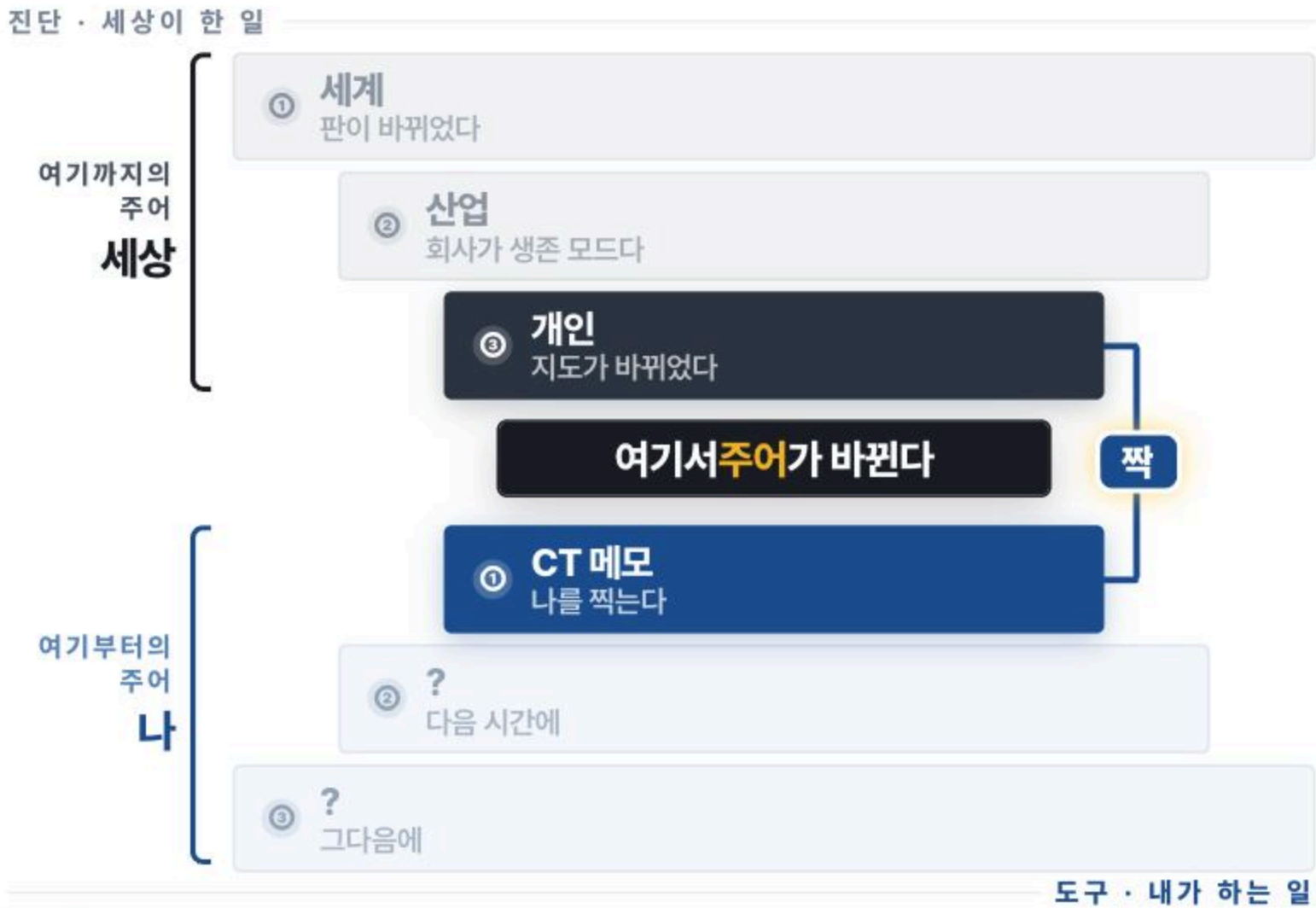
- **개인** 내가 몰입하는 조건
- **산업** 그 일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 — 다음 시간
- **세계**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— 마지막 시간

왜 『개인』부터인가

잴 자가 없으면 —
취업 "그 회사 좋아 보이네"
진로 "그것도 괜찮아 보이네"
로 끝납니다

셋이 겹치는 자리 = 지원할 회사 · 자소서 · 포폴 · 진로
오늘은 첫 번째 — 개인

CT 메모가 — 「개인」과 딱 맞닿습니다

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왜 나부터냐면 — AI로 «내» 문장을 쓰려면 AI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

비서를 두는 이유 — 일을 대신해 주고, 나를 알아서

적어서 알려줘야 씁니다 — 오늘 찾을 세 가지 = 그 재료



우리는

비서를 못 둡니다. **대신 AI가 있습니다** — 공짜거나, 거의 공짜입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냥 해 줘 — 딸깍은 안 통합니다

비서가 있다면 — 똑같이 시키실 건가요?

AI

"장난칩니까? 휴먼"

AI 채팅

심심한데 대기업 합격하는 자소서 하나 뽑아 줘

네, 물론이죠! 지원 동기부터 써 드릴게요 —
저는 평소 귀사의 혁신적인 가치에...

메시지 입력

그래도 친절하게 답은 합니다 — 진로를 물어도 비슷합니다

채팅방 입장 — QR 한 번



26.9 마포센터강의 —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들어옵니다

찍으면
바로 입장

익명
이름 안 나옵니다

3일 동안
자료 · 프롬프트 제공

공지에 링크
쉬는 동안 해 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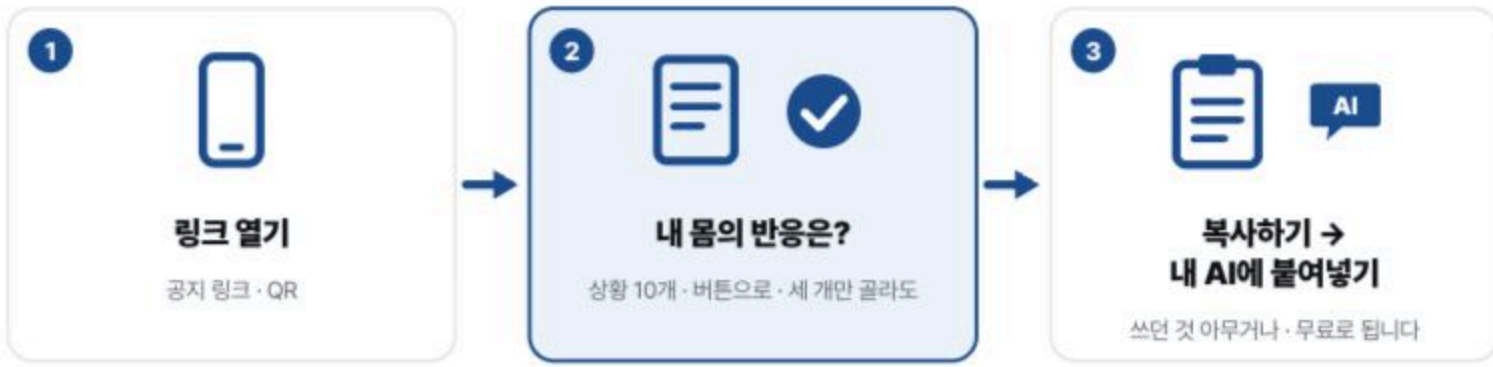
지금은 — **들어와 계시기만** 하면 됩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쉬는 동안 — 해 보셔도 되고, 그냥 쉬셔도 됩니다

CT 메모 — 해 보기

세 개만 골라도 됩니다 — 아무 데도 안 보냅니다 · 저도 안 봅니다



나온 답은 — 지우지 말고 두세요 · 마지막 시간 «파일 하나»에 넣습니다

재미로 하는 거예요 · 심리검사 아닙니다

CT 메모 해 보기 — toraclejin.github.io/ct-memo · 누르면 열립니다

쉬는 동안 — CT 메모 해 보기 · 안 하셔도 됩니다

휴식 10분

> 돌아오면 — **CT 메모**, 나를 찍습니다
>
> 실습 링크는 채팅방 공지에도 있습니다

CT 메모 해 보기 — toraclejin.github.io/ct-memo · 누르면 열립니다

세션 2 파트 1

CT 메모 — 나(개인)를 찍는다

셋이 아니라 같은 동작 하나 — 오늘은 나부터

① CT 메모

② ?

③ ?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쉬는 동안 해 보신 그것 — 먼저 이것부터

CT 메모란?

이름 풀이 — 30초

왜 이름이 CT 메모인가

CCTV처럼 판단 없이 · CT처럼 겉으로 안 보이는 안까지



CCTV

길에 달린 카메라

밖을 찍습니다

판단 없이 — 있는 그대로

+

CT

병원의 단층촬영

안을 찍습니다

겉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

CT 메모 = 밖에서 일어난 일 + 그 순간의 신체 반응 — 한 줄

> 밖에서 일어난 일 + 그 순간의 **신체 반응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2 · 파트 1 어떻게 적나 정리 — 먼저 한눈에

적는 틀	**날짜 · 장소 · 상황 — 몸이 한 일** 내 느낌은 적어도, 안 적어도 됩니다
무엇을	**몸이 한 일** — 멈춤 · 손 · 시선 · 숨 · 몇 초
감정은	적어도 됩니다 — **거기서 끝내지만 않기**
얼마나	**15초 한 줄** — 길면 다듬고, 다듬으면 미화

CT 메모

경험하는 즉시,
15초 안에

날짜 / 장소 / 상황

손에 남는 것 — 판단은 미루고 찍는 습관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리고 CT 메모가 하는 일은 — 세 개

CT 메모 — 네 칸

하는 일 셋 — 습관 · 판단 미루기 · 방향이 문장으로



반응한 순간,
느낀 직후 — 미루면 사라진다

몸이 한 일을
감정만 적고 끝내지 않는다

한 줄로
문장이 안 돼도 된다

"짜증났거나, 좋았거나, '어?' 했던 순간에 — 그때 **내 몸이 뭘 했는지**를 15초 안에 한 줄로"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말로 하면 어려워 보이니까 — 그냥 보여드립니다

제 노트입니다 — 이렇게 적습니다

26-04-10 · 집 근처 카페

오랜만에 펜으로 뭔가 적음.

손에 펜의 감각이 10초 정도 어색함

날짜 · 장소 · 몸이 느낀 것 한 줄 — 이게 CT 메모, 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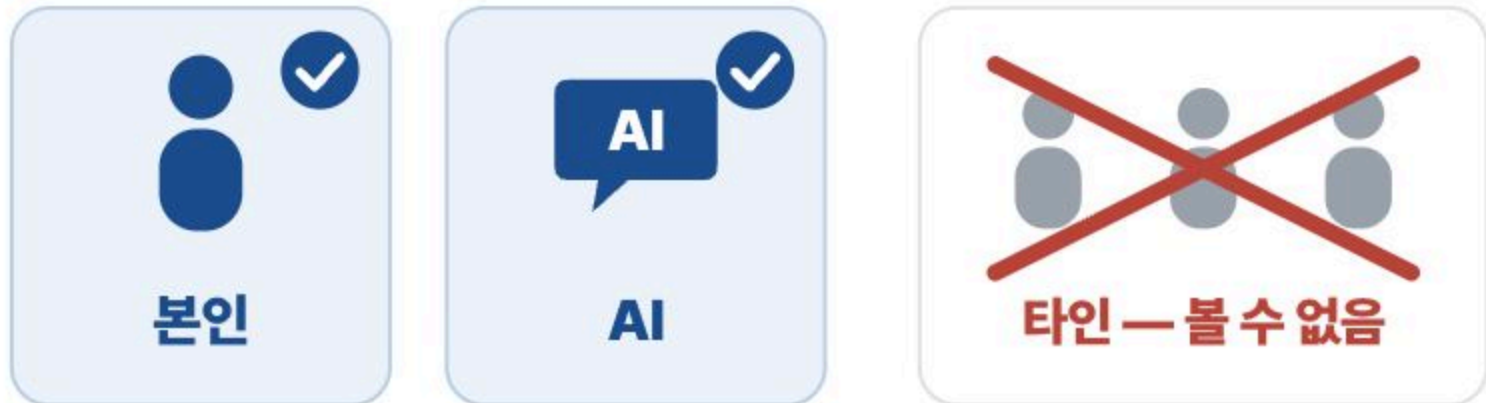
제목 없이 · **날짜와 장소**만 적고 · 문장이 안 돼도, 맞춤법이 틀려도 — **이 정도면 됩니다**
지킬 건 하나 — 뭘로 적든 **한 군데에만**

이렇게 막 적어도 되는 이유

이 메모는 — 비공개입니다

남이 볼 거라 생각하면 — «적을 가치가 있나»부터 따집니다





보는 사람 — 본인과 AI · 제출 없음

본인 빼고는 **아무도 못 봅니다** — CT 메모도, 다음 시간에 배울 둘도 같습니다

실행 규칙 — 지킬 것은 딱 셋

시작을 막는 건 대부분 — 안 해도 되는 다섯

지킬 것 — 딱 셋

- 한 곳에만 적기
- 판단하지 않기
- 편집하지 않기

안 해도 되는 것 — 다섯

- 매일 안 해도 됨
- 잘 쓰지 않아도 됨
- 그날 다시 읽지 않아도 됨
- 정돈하지 않아도 됨
- 앱 설치 안 해도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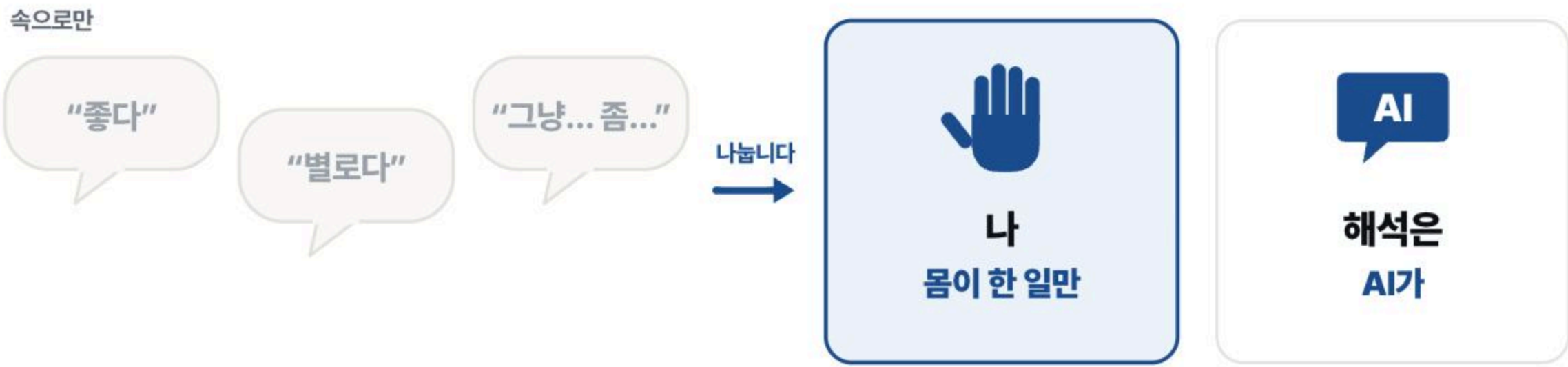
총 요구량 — **메모 하나당 하루 15초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런데 — 적을 말이 안 나옵니다

지금 기분을 —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

그래서 나눕니다 — 나는 몸이 한 일만 · 해석은 AI가



예) 제 노트 — 아까 그 한 줄

제 노트 한 줄 — 몸이 한 일만

26-04-10 · 집 근처 카페 날짜 · 장소

오랜만에 펜으로 뭔가 적음.

손에 펜의 감각이 10초 정도 어색함 몸이 한 일 · 몇 초

강낭콩 — 「떡잎 두 장 · 키 3cm」

나 — 「손에 펜의 감각이 · 10초 어색함」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같은 순간 — 두 가지로 적으면



출처 사진 출처 : 국립중앙박물관

같은 순간 — 두 가지로 적으면

✕ 해석(또는 감정)만 적으면



"사유의 방 — 공간의 압박감이
…짓누른다는 게 **인상 깊었음**"

「인상 깊었음」 — 이건 해석
…일주일 뒤 기억이 이걸로 굳는다
CCTV가 못 찍는 것

내가 이미 판단한 것

✓ 몸이 한 일도 적으면 15초





"26-09-4(금) 15:30 · 사유의 방
묵상 **3분**. 발걸음 멈춤 **3분**.
공간의 압박감이 …짓누른다는 게
인상 깊었음"

몸이 한 일에 — 감정은 같이 적어도 됩니다

해석만 적으면 — **기억이 그 해석으로 굳습니다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왜 하필 15초인가

의지가 아니라 — 판단과 길이의 문제
새로 만든 게 아니라 — 상담 · 업무 관리의 기록 방식을 조합



1 **판단이 끼어들면 — 안 적는다**
「적을 가치가 있나?」 → 뇌는 「아니」

2 **길면 — 다듬는다**
다듬으면 **미화**

3 **거절 못 하는 단위**
"메모하세요" × · "15초만" ✓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 방법은 —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

인지행동치료 생각 기록지	**기록과 해석을 나눈다** 기록 먼저, 해석은 나중 — 「판단을 빼라」의 출처
업무관리법 GTD 기업 교육에 널리 쓰임	**일단 한 곳에 모으고** 정리는 나중에 — 구조가 같다
강점 연구 마커스 버킹엄	**한 주 동안 「좋았다 · 싫었다」를 그때그때** 강점은 «힘이 나는 일» — 나중에 돌이켜 말고

> 하나하나는 **이미 검증된 것**들입니다 — **묶는 방식만** 새로운 겁니다

출처 Beck 생각 기록지 · Allen GTD 2001 · 버킹엄 『강점에 집중하라』 2007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적는 법은 봤으니 — 이제 쓰는 법

CT 메모 사용법

면접에서 — 꼭 나오는 질문

"강점이 뭐예요?"
"음… 딱히요"

> 못하는 건 아닌데 — 이걸로 뭘 하겠다기엔 애매한 것 · 하나씩 떼어 1등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

1등과 비교하면 — 다 애매합니다

하나로 1등 말고 — 몇 개를 겹치면



하나로 1등

그 분야 맨 위까지

— 가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

하나씩 떼어 비교하면 — 다 애매해 보입니다

말고



몇 개를 겹친다

하나하나는 —

«꽤 하는»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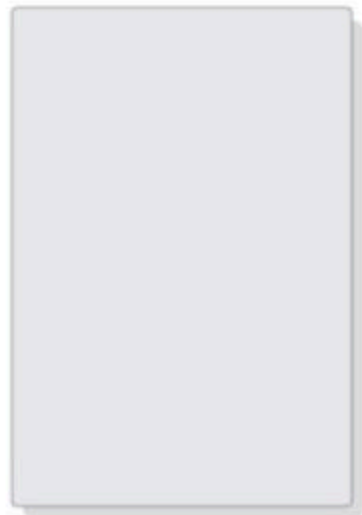
그림 · 글 · 회사 감각처럼 — 종류가 다른 것

이걸 — 책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걸 — 책으로 쓴 사람

『딜버트』를 그린 사람이 — 『더 시스템』을 썼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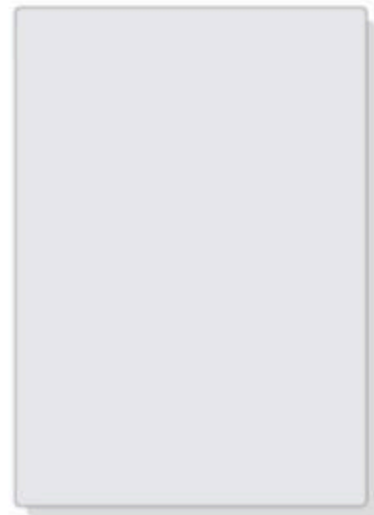


『딜버트의 법칙』

직장인 만화 『딜버트』 · 1996 한국어판

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—

이 책을 썼습니다



『더 시스템』

같은 사람이 쓴 책 · 2020 한국어판

『딜버트』 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그린 미국 직장인 만화 · 1989년부터 신문 연재

출처 스콧 애덤스 『딜버트의 법칙』(이은선 옮김 · 홍익 1996) · 『더 시스템』(김인수 옮김 · 베리북 2020) — 표지 이미지 교보문고 · 알라딘 · 『딜버트』 첫 연재 1989.4.16(위키백과 「Dilbert」)

강점 상위 25%를 겹치면 — 상위 몇 %가 될까

강점 상위 25% 셋을 겹치면 — 64명 중 1명

딱 떨어지진 않지만 — 겹칠 때마다 확 드물어집니다

『더 시스템』을 쓴 만화가의 셋 — 다 «상위 25%»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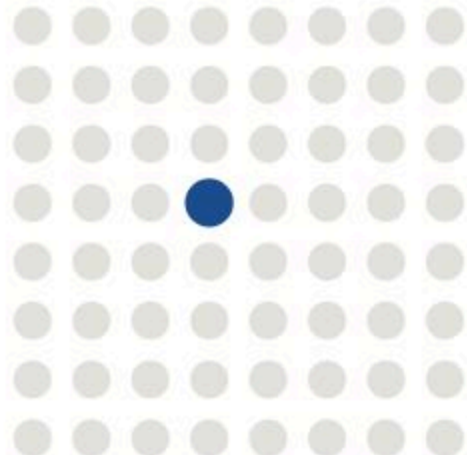
- 그림 — 서툶 ● 상위 25%
- 글솜씨 — 평범 ● 상위 25%
- 회사 감각 — 조금 ● 상위 25%

셋을 겹쳐 → 직장인 만화 『딜버트』

4 × 4 × 4

= 64

주변 64명과 비교해 보면



이 셋을 다 가진 사람 — 1명

그렇다면? — **상위 25% 강점을 계속 겹치면**

출처 스콧 애덤스 『더 시스템』(김인수 옮김 · 베리북 2020) — 「상위 25%를 둘 이상」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단, 아무 셋이나가 아닙니다

강점 상위 25%를 — 일상이 바빠도 찾아내는 방법

머리로는 안 떠오릅니다 — 몸이 반응한 순간을 모으면 보입니다

① 바빠도 — 하루 15초



몸이 반응한 순간만
한 줄로 적는다

= 오늘 배운 CT 메모

② 모으면 — 이유가 보인다



자꾸 채우려 드는 것
= 결핍

그 일을 하게 된 이유 — 하나

결과 — 강점 상위 25% 셋



종류는 달라도
이유는 하나

→ 바빠도 놓지 않는다

+ 불편한 순간 — 내 강점으로 고칠 점은 다음 시간 · 불편 메모

> 이유가 제각각이면 바빠질 때 하나씩 빠지고 — 이유가 하나면 바빠도 계속합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여기서 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

강점 상위 25% — 어떻게 알고, 누가 정하나

1 강점 상위 25% — **어떻게 알아요?**

2 그걸 — **누가 정해요?**

3 강점인 줄 알았는데 — **아니면요?**

물어서 말고, 모아서

몸이 반응한 순간이 —
되풀이되는 것

→ 바로 다음 장

AI는 후보만 — 정하는 건 나

근거는 날짜 붙은 내 메모 —
맞는 것에만 ○

→ 이따 제 메모로

고치면 됩니다

메모가 쌓일 때마다 다시 넣고 —
마지막 시간엔 밖에서 확인까지

→ 마지막 시간

제 강점 다섯도 — 이렇게 나왔습니다 · 이따 제 메모로 직접 보여 드립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"강점이 뭐예요?" "단점이 뭐예요?"

물으면 모릅니다 — 몸에 신호가 남습니다

잘하는 일 앞에서

이런 신호가 자주 나옵니다



심장이 두근거린다



몸이 앞으로 간다



시간 가는 줄 모른다

결핍이 건드려질 때

이런 신호가 자주 나옵니다



머리가 멍해진다



얼른 벗어나고 · 바꾸고 싶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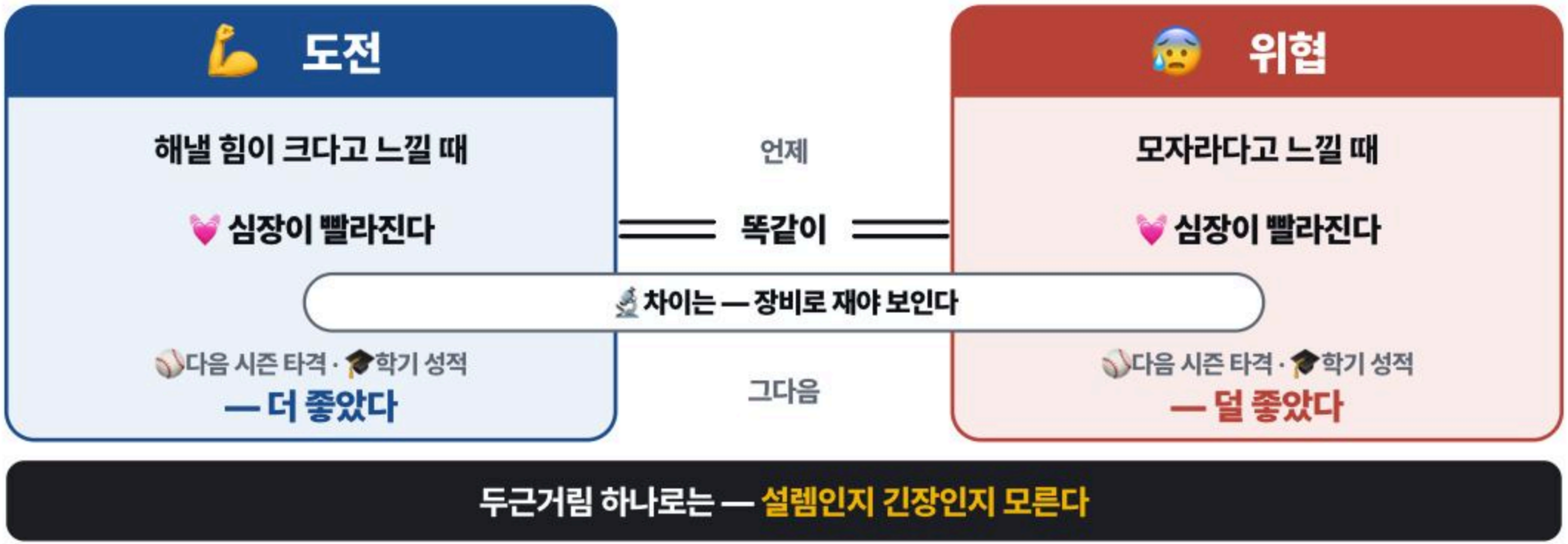
기분이 나빠진다

하나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— 그 자리에서 적어 모으면 **겹치는 게** 보입니다 · 그게 CT 메모

연구 하나 — 도전과 위협

두근거림은 — 설렘일 수도, 긴장일 수도

그래서 — 한 번의 두근거림으로 판정하지 않고 모아서 봅니다



출처 블라스코비치 · 토마카 1996 · 블라스코비치 외 2004 · 시어리 외 2010 — 도전 · 위협 반응(타자 27명 · 대학생 95명)

세션 2 파트 2

CT 메모 정리 — AI로 내 강점 찾기

모아서 한 번에 넣으면 — 어디로 갈지 한 문장

① CT 메모

② ?

③ ?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『더 시스템』을 — 제 메모에 적용해 보면

메모를 한 번에 — 상위 25% 다섯

제 메모

하루 한 줄씩 — 쌓인 것

백 줄 넘게

나를 제일 잘 드러내는 기록

→ AI →

상위 25%짜리 강점 — 뭐가 겹치나?

1. **현장 관찰력** — 엉킨 상황의 실체를 먼저 읽는다 — 상위 25%
2. **구조로 묶기** — 흩어진 걸 반복되는 틀로 — 상위 25%
3. **수출 실무 10년** — 서류 · 절차 · 이해관계가 얽힌 현장 — 상위 25%
4. **AI를 빨리 내 것으로** — 몇 주 걸릴 정리를 며칠로 — 상위 25%
5. **끝까지 버팀** — 안 풀린 주 다음엔 다시 — 상위 25%

다섯을 겹치면 — 꼬인 상황을 푸는 사람 · 『더 시스템』은 셋, 저는 다섯

"나는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, 내가 직접 개입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"

이 문장으로 — 직무가 나옵니다: **기획 · PD · 컨설턴트**

★ 오늘 제일 중요한 것 — 한 주에 한 번

한 주에 한 번 — 기존 메모에 상황 · 의미를 붙입니다

모아 둔 게 있어야 —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

기존 메모

그 자리에서 15초 · 매일

날짜 · 시간 · 장소 · 내용

예)

261012 / 오전 11시 30분 /
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들은 강의가
진로 찾는 데 도움 됐다.
CT메모 이야기 들으면서 고개 3번
끄덕임, 조용히 「음」 소리 냄

상황

한 주에 한 번

이게 일어난 배경 — 뭐 하다가 생겼나?

예)

서울청년센터 마포 강의

의미

시간이 지난 뒤 · 제3자의 시선

그래서 이게 뭘 말해 주는 것 같은가?

예)

별 기대 없이 들었는데
생각보다 더 도움됐어

왜? — 제3자의 눈으로 다시 읽기 · 메타인지 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증빙 — 말로만이 아닙니다

CT 메모 한 주 정리 — 제 실제 기록

매주 한 장씩 — 메모가 이렇게 늘어갑니다

CT 메모 한 주간 정리 — 기본 형식

- **기존 메모:**
  날짜 / 시각 / 장소 / 장면 + 몸의 반응
- **상황:** 그때 뭘 하고 있었나
- **의미:** 그래서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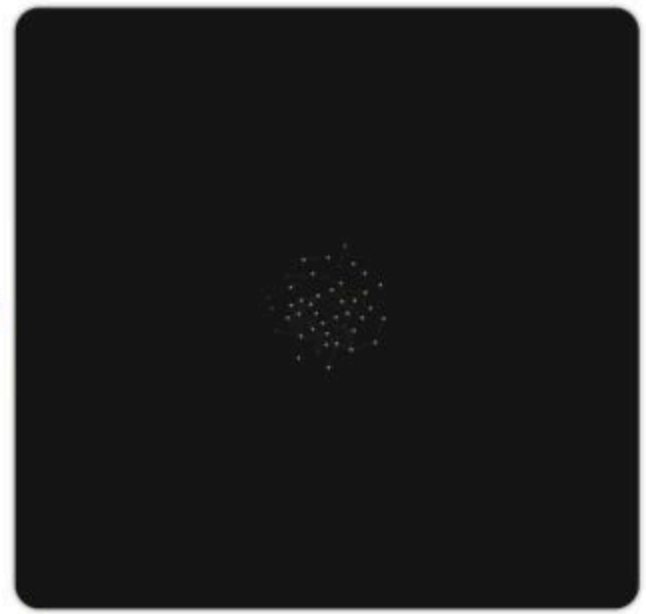
실제 정리 시 아래 내용으로 작성

CT 메모 한 주간 정리
- 기존 메모:
- 상황:
- 의미:

① 한 주에 한 번 — 이 틀로 정리



② 메모 앱 — 주마다 한 장(4월부터 26주)



③ 쌓일수록 — 메모끼리 이어집니다

제 메모를 넣고 — 이렇게 시켰습니다

말로 시키면 — AI가 메모를 읽습니다

집에서 하실 일도 이것뿐입니다 — 모아서, 한 번에 넣기



제 메모 통째로

하루 한 줄씩 — 백 줄 넘게

제가 AI한테 하는 말

"제 메모 전부예요.

① 상위 25%쯤 되는 제 강점을 찾고,

② 겹치면 어떤 사람인지 — 한 문장으로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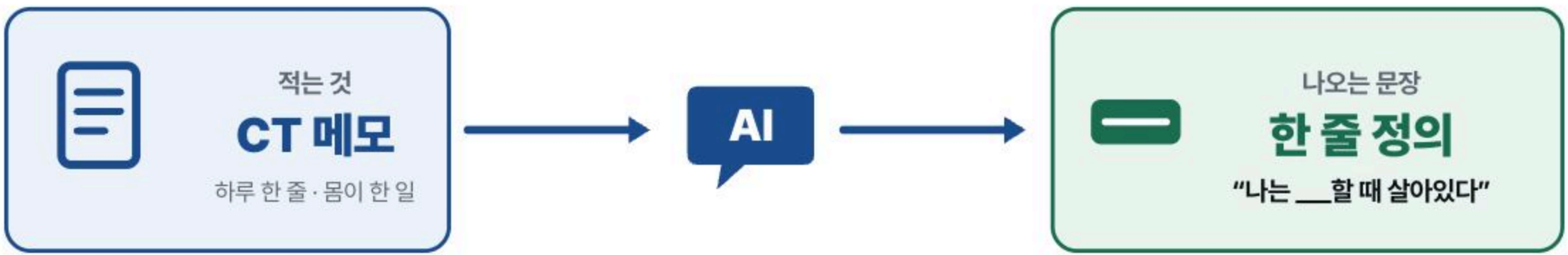
AI

강점을 찾고 —
겹쳐서 한 문장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 문장의 이름 — '한 줄 정의'

2회차 · 3회차에서도 — 계속 씁니다



= 검색창에도 넣는 말 · 남은 두 번 내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까 ③ 지도가 바뀌었다 — 없어진 건 길이 아니라 기준

지도를 그리려면 — 내 위치부터 찍어야 합니다

남이 안 그려줍니다
학교도 · 회사도 · 먼저 겪은 사람도

↓

그럼 내가 그립니다
그게 오늘부터 할 일입니다

↓

먼저 「내 위치」부터
그게 없으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



> 지하철 노선도 — **「현재 위치」**가 없으면 못 갑니다
> CT 메모 = 그 **「현재 위치」** 표시

내 위치를 찍었으면 — 모아야 합니다

왜 모아야 하는가?

점 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— 겹쳐야 보입니다

1 · 점



한 개는 의미 없음

2 · 선



스무 개면
겹치는 것이 보임

3 · 묶음



이름을 붙일 수 있음

4 · 자(척도)



회사나 진로를 볼 때
"여기서 그 상황이
자주 생기나" 물을 수 있음

> 한 번은 그날 기분 — **열 번 겹치면 패턴**
> 본인은 못 봅니다 — **너무 가까워서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제일 중요한 건 이것 — 매주 일요일 저녁

모은 메모를 — 명령어에 맞춰 AI에 정리 · 분석

여러분이 할 일은 셋 — 하루 한 줄 · 모아서 던지기 · 맞는 것에 ○



명령어 복사

단톡방 공지 · 홈페이지

AI 채팅창에 붙여넣기

평소 쓰던 것으로

그 밑에 정리 노트 붙여넣기

이번 주 기존 메모 · 상황 의미 + 지난 「누적 요약」

보내기

읽고 — 아닌 건 아니라고

「누적 요약」 저장

다음 주에 같이 붙여넣기 맞는 것엔 ○

계속 쌓을수록 더 정확해지고 — **세 개여도 됩니다** · 다만 AI의 답이라 —
더 정확해지기 위해선 메모가 쌓일 때마다 다시 넣어 고쳐 갑니다

그 명령어 — 이렇게 생겼습니다

쌓일수록 — 더 깊이 읽어 줍니다

하루 한 줄 — 100개면 일 · 직무까지 이어집니다

CT 메모 명령어 — 일부(원문)

너는 사용자의 CT메모(일상 속 순간을 15초 안에 적은 짧은 기록)를 매주 함께 읽어 주는 담백하고 객관적인 러닝메이트다.

모든 강점·해석은 사용자가 붙여넣은 메모 속 실제 장면에서만 끌어낸다. 판단마다 근거 메모를 날짜와 함께 짧게 인용한다.

매 답변 끝에 다음 주에 그대로 붙여넣을 "누적 요약" 블록을 준다.

... (이하 중략)

전체는 채팅방 공지 · 홈페이지 —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

메모 개수에 따라 — 열리는 것

1단계 · 30개 미만 — 강점 후보 · 도움 되는 장면 — 직무 단정은 아직

2단계 · 30~99개 — 강점이 겹치는 «조합» — 일이 될 만한 장면 힌트

3단계 · 100개 이상 — 맞는 일의 모양 · 직무 예시 — 자소서 · 면접에서 꺼낼 장면

매주 — 정리 노트 + 지난 "누적 요약" → AI → 새 "누적 요약" 저장 → 다음 주에 또

진짜 쓸모가 커지는 건 — 회사를 볼 때

자가 없으면 잴 수 없습니다

진로 이 방향이 나와 맞나

취업 이 회사가 나와 맞나

→

같은 자로 잽니다

"좋아 보인다"가 아니라

"여기서 내가 몰입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나"

들어가 보고 나서 **"안 맞네"** 하면 —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
첫 직장 퇴사 이유 1위 — "근로여건이 예상과 달라서" **44.4%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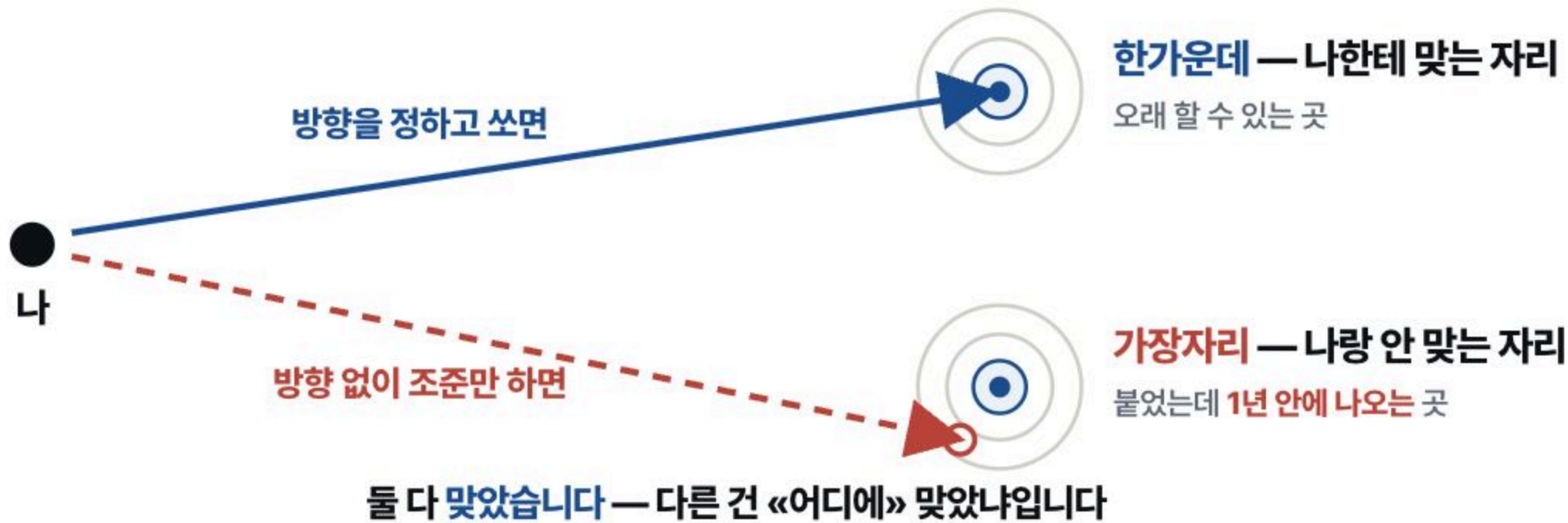
내 위치를 모르면 — **거리도 못 잽니다** · 그래서 느낌으로 지원하고, 들어가서 「어 아닌데」

출처 **국가데이터처**(구 통계청)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1위 '보수·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' **44.4%**

겹치는 걸 묶으면 — 그게 방향입니다

진로는 방향이고 — 취업은 그 길 중 하나입니다

방향은 조준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— 조준할 재료를 줍니다



둘 다 맞았습니다 — 다른 건 «어디에» 맞았냐입니다

취업 준비는 계속 — 방향 잡는 비용은 **하루 15초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2 · 파트 2

CT 메모 정리 — 방금 한 것

왜 적나	AI는 나를 모릅니다 — 그래서 **재료**를 줍니다
뭘 적나	몸이 반응한 순간 — **몸이 한 일**
언제	그 자리에서 — **15초**
쌓이면	스무 줄쯤 모이면 — **겹치는 게** 보입니다
그걸로	**한 줄 정의** — 회사가 나와 맞는지 잽니다

집에서 지킬 건 셋 — 한 곳에만 적고 · 판단하지 말고 · 정리하지 말 것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3

정리 — 오늘 손에 남는 것

그리고 — 다음 시간에 같이 채울 것

오늘 두 시간 — 줄이면

손에 남은 것 — CT 메모 · 한 줄 정의 · 명령어

1



왜 이렇게 됐나

세상 · 회사 · 지도

2



주어를 바꿨다

세상 말고 — 나부터

3



나를 찍는 법

매일 한 줄 · 한 주에 한 번 의미

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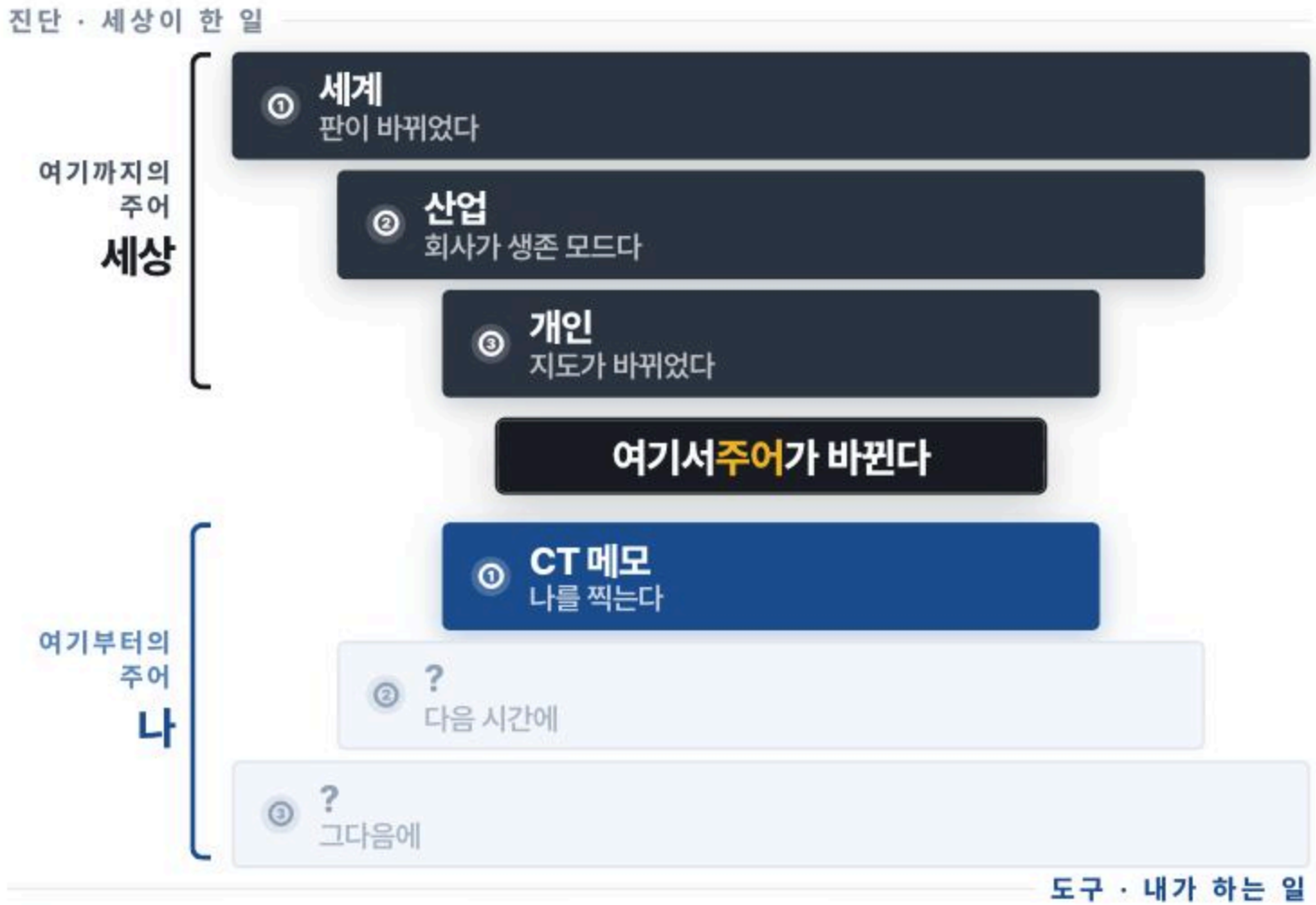
모아서 AI에 넣으면

→ 내 강점 · 한 줄 정의

그리고 실습에서 모은 메모 — **오늘 이미 시작한 겁니다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오늘 네 칸 — 아래 두 칸은 비워 뒀습니다
다음 시간에 회사를 읽고 · 마지막 시간에 서류로



진로를 못 정한 것은 — 지금 시기엔 보통입니다

기존 경로가 사라져서

성격 · 의지 문제 아님



오늘 찍은 건

좌표 하나

그거면 충분합니다

오늘은 여기까지 — 숙제는 하루 한 줄, 그게 다입니다

다음 시간까지 — 이것만

메모가 세 개라도 있으면 — 다음 시간에 쓸 재료가 달라집니다

꼭 할 것

오늘 밤 한 줄

몸이 한 일 — 본 것만

하면 좋은 것

한 줄 정의 뽑기

실습 메모 + 오늘 한 줄을
명령어에 넣으면 — 3분

안 해도 되는 것

잘 쓰기

못 뽑아도 괜찮습니다
다음 시간에 같이 뽑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채팅방 — 명령어 · 질문

오늘 오신 분들이 — 가져가시는 것

CT 메모 명령어

단톡방 공지 · 홈페이지 — 오늘 · 집에서

모아 둔 CT 메모 통째로 →

패턴 · 관심 · 강점 · 한 문장 · 직무

3개~20개 다 됩니다 — 그대로 붙여넣기

질문 채팅방에

남겨 주시면 —

제가 계속

봅니다

외울 것 없음 — 단톡방(또는 홈페이지)에 **명령어 둘**

① 쓰던 AI에 붙여 넣기 · ② 더 해 볼 분만 — AI 코딩 도구로 메모 앱과 같이 관리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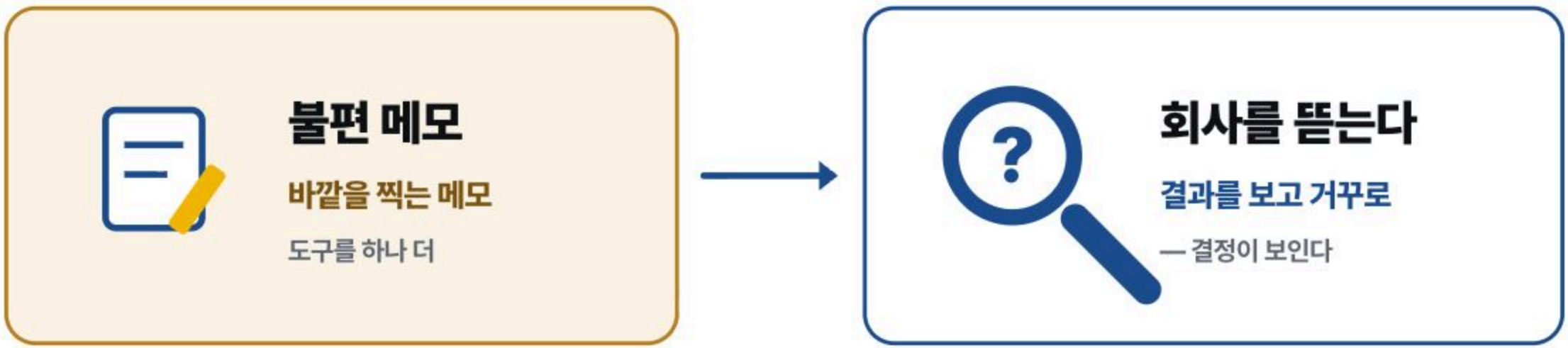
오늘 배운 걸 들고 — 다음 시간

📣 2화 예고!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오늘 모은 재료를 — 다음 시간에 씁니다

2회차 — 불편에서, 내 일 찾기



불편 메모로 — 「왜 이렇게 됐을까?」· 「나라면 어떻게 풀까?」

오늘은 재료를 모았고 —
레시피는 다음 시간에 채웁니다!

그럼 뭐가 필요하냐 — 두 가지

재료는 나의 문장 — 레시피는 구조(structure)

레시피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→ 복붙 자소서



① 재료

= 나의 문장

CT 메모 · 한 줄 정의

시간이 걸립니다 — 하루 한 줄씩

오늘 배운 것



② 레시피

= 구조

회사 · 산업에 맞게 — 혹은 진로에 맞게

회사의 결정을 읽어내는 법

다음 시간

재료만 있고 레시피가 없으면 → **자기주장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번엔 — 재료를 넣고 똑같이 시켜 봤습니다

장면은 생겼습니다 — 그런데 회사(목표/목적지)가 없습니다

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「저는」 — 자기주장이 됩니다

넣은 것

다량의 메모

→ 한 줄 정의

오늘 모은 재료

AI

똑같이 시키면

나온 것 — 자소서 지원 동기

저는 ~한 습관이 있습니다.

저는 ~한 관찰력이 있습니다.

저는 ~한 인재가 되겠습니다.

✔ 장면은 들어갔다 — 아까보단 낫다

× 회사(목표/목적지)가 없다 — 주어가 전부 「저는」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까 그 얼굴 — 표정이 있었다면

재료를 넣어도 — 레시피가 없으면

그 레시피 — 다음 시간에 같이 채웁니다!

AI

AI 채팅

심심한데 대기업 합격하는 자소서 하나 뽑아 줘

📎같이 넣음 — 제 메모 잔뜩 · 한 줄 정의

...그래서,

어느 회사요?

우리는 모두 해결책을 알고 있다.
다만 머릿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다.

오늘, 한 줄부터.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고맙습니다

채팅방

자료 · 명령어 — 3일 동안

제 홈페이지

www.workcellent.co.kr

아직 채팅방에 안 들어오셨다면 — **지금 찍으셔도 됩니다**